제 1 편

마을 이야기



제1장 마을 개관

- 제1절 자연환경
- 제2절 인문환경
- 제3절 마을 주민의 생활사
- 제4절 행정약사
- 제5절 기관 단체 및 공공 시설
- 제6절 정보화마을
- 제7절 이민 단합 체육대회

제2장 마을역사

- 제1절 설촌 유래와 마을의 변천사
- 제2절 마을 이름의 유래
- 제3절 고지도에 나타난 마을 이름
- 제4절 옛날의 수산경
- 제5절 마을의 사건 및 주민운동

제3장 마을과 자연

- 제1절 오름과 천연동굴
- 제2절 연못, 습지
- 제3절 고유지명 유래



제 1 장
마을 개관

제1절 자연환경

위치 수산리는 한라산 동쪽 기슭에 자리잡은 바다가 없는 중산간 마을이며, 성산일출봉, 표선민속촌 등 제주동부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중산간 지역 교통의 중심지이다. 지리적으로는 섬의 북쪽에 위치한 제주목 관아였던 관덕정[1]에서 동남쪽 방향 직선거리로 약 45km 떨어져 있으며, 성산읍사무소 소재지인 고성리 일주도로에서 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수산2리는 1리에서 서쪽으로 1.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산리는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인접한 마



▲ 수산리 위치와 구역을 나타내고 있다.

1) 관덕정: 제주시의 중심가에 자리한 관덕정(觀德亭)은 제주에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1448년(세종 30)에 제주목사인 신숙청(辛淑晴)이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었다.

을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고성리, 서쪽으로는 표선면 성읍리, 남쪽으로는 난산리와 온평리, 북쪽으로는 시흥리가 있어, 다른 중산간 마을보다도 교통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고성리 수산방향 입구에서 수산2리 입구까지 4차선 도로가 개통되어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도상으로 극동(極東)은 수산리 4 동경 126°55′, 극서(極西)는 수산리 4,763 동경 126°55′, 극남(極南)은 2,641-2 동경 126°55′, 극북(極北)은 1,396-2 동경 126°55′이다. 법정리는 수산리, 행정리는 수산1·2리로 나누어져 있다.

지형과 기후 한라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이면서도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해발 고도가 낮으며 평탄한 지대를 이룬다. 대왕산, 남거봉, 궁대오름, 뒤굽은이 등의 봉우리가 솟아 있으며, 하천은 대부분 건천(乾川)이다. 이외에도 수산한못, 누루못, 도로못, 동치못, 이전물 등 습지 형태의 연못이 많았다.

토질은 미사질토양군에 속하며, 일부 지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되어 각종 작물 생육이 양호한 편이다. 날씨는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드물어 보리, 조, 콩, 유채, 무 등의 밭농사와 온주감귤, 한라봉 등의 감귤농사, 목축업 등에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성산기상대에서 관측한 1980~2020년까지 41년간의 겨울철 1월의 평균 기온은 5.2℃로, 최저는 2.4℃, 최고는 8.1℃ 정도이다. 여름철 8월의 평균 기온은 26.2℃로, 최저는 23.7℃, 최고는 28.3℃ 정도이다. 1990~2020년까지 31년간 월간 평균 강수량은 165mm, 연간 평균 강수량은 2,037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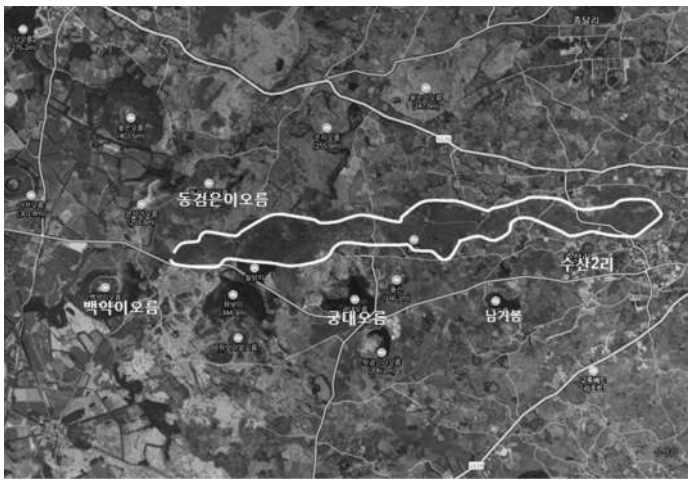
자연환경 수산리 경계에서 서쪽 끝 부분이 속칭 <대틈>이며, 구좌읍 종달리 경계와 교차되는 곳이기도 하다. <대틈>에서부터 마을이 접해있는 속칭<캐여물동산>까지는 암석지대의 능선으로 이어져 있다. 그 능선 남쪽을 <앞드르>지경이라 하고 북쪽을 <뒷드르>지경이라 한다. 이 두 지경의 특징은 잘 대비된다. <앞드르>는 토심이 얕고 암석지대가 많으며 습지가 많아 농경지로서 알맞지 않은 반면, <뒷드르>는 토심이 깊으며 암석 지대나 습기가 별로 없어 농경지로 알맞은 지경이다. 속칭 <캐여물>을 중심으로 남쪽에 <신술ᄆᆞ르> <진개ᄆᆞ르>가 있고, 마을 동남쪽으로 <대수산봉>과 <老乙於是, 노을어시>동산이 있으며, <캐여물> 북쪽으로 <개장ᄆᆞ르> <대왕산> <울렛ᄆᆞ르>로 둘러싸여 있어 풍수지리학상으로 청룡백호(青龍白虎)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동서로 학교 앞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있었는데, 우천시에만 물이 흐르는 냇골로 건천이다. 동서로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이 건천은 장마철 또는

태풍이 발생했을 때 <수산한못>의 속칭 양수(兩水) 등지에서 모인 물이 <성앞못>을 지나 <누루못>을 거쳐 고성리로 흘러가는데 그 길이가 약 7.2km 이상의 긴 하천으로 <고수천>[2]이라고 하였다. 건천 주위에 있던 마을 주민들은 많은 홍수피해를 겪기도 하였고. 이 건천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동네 이름을 <내팟동네> 즉, 천외동(川外洞)이라 불렀다. <ᄉᆞ싯동산>을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동네가 형성되었으며, 천외동 학생들은 홍수가 발생하면 학교에 등교를 할 수가 없었다.

수산2리는 냇골의 상류와 <대틈>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암반층 능선의 남쪽에 형성된 아주 아담한 마을이다.

우리마을은 광활한 목야지와 경작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낮은 생산성의 척박한 토질은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으나, 개척정신과 끈질긴 노력으로 말과 소를 기르고 토질에 알맞은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왔다. 목화를 재배하여 자체적으로 길쌈을 해 옷감을 짜고 옷을 해 입었으며, 조, 고구마, 콩, 팥, 산디(山稻, 산도),[3] 메밀, 피 등을 재배하여 식량을 조달했다. 근래 와서는 하우스 재배가 가능한 한라봉, 천혜향 등의 만감류와 온주밀감과 키위는 물론, 당근, 월동무 등을 재배하고 있다.

수산곶자왈 성산읍에서 유일한 곶자왈이다. 보통 <대틈, 대틈산전>이라 불렀던 곳으로, 곶자왈은 순수한 제주어이며 가시가 많은 덤불이나 잡목림으로 정의되어 있다. 수산곶자왈은 넓게는 백약이오름 북쪽 끝에서 수산 2리 마을까지 좁고 긴 선형으로 길이 약 5km, 폭 0.3~0.9km의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록활엽수가 우점하는 난대림 식생이 나타난다.



▲ 수산곶자왈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대략적인 위치도
(보통 <대틈, 대틈 산전>이라고 불렀던 곳이다.)

곶자왈 내부에는 상록활

2) 고수천: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서귀포시 Ⅲ, 성산읍, 표선면, 2014)
3) 산디(山稻, 산도): 밭벼, 밭에 심는 벼. 볍씨를 뿌려 가꾸는데 알이 굵다. 육도(陸稻), 한도(旱稻)라고도 한다.

엽수림이 형성되어 있고, 숲 가장자리는 양지성 낙엽수림이 서식한다. 상록활엽수림은 교목층(喬木層), 관목층(灌木層)과 초본층(草本層)으로 구분된다. 교목층(喬木層)은 참식나무를 비롯하여 생달나무, 감탕나무, 동백나무 등이 분포하며, 참식나무 같은 녹나무과가 우점해 있다. 관목층(灌木層)에는 상산, 쥐똥나무, 보리수나무 등이 자라고, 동백나무와 생달나무 등 난생성 수목이 비교적 많이 분포한다. 초본층(草本層)에는 노출 암석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맥문동, 호자나무, 소엽맥문동, 홍지네고사리, 가는쇠고사리, 일색고사리, 더부살이고사리, 송악, 콩짜개넝쿨 등이 서식하며, 백량금과 겨울딸기, 멀꿀, 자금우 등이 자라고 있다. 상록활엽수림의 분포는 마을 근처로 내려가면 점차 초지가 섬의 형태로 나타난다. 곶자왈의 가장자리에는 양지성 낙엽활엽수림으로 팽나무, 윤노리나무, 느티나무, 자귀나무, 단풍나무, 상산, 황벽나무, 찔레, 보리수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이러한 식생은 초원이나 경작지로 이어진다.[4]



4) 성산읍역사문화지(제주특별자치도, 2010),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서귀포시 III, 성산읍, 표선면, 2014)

제2절 인문환경

세대 및 인구 변화 1785년 인구수는 신양리(新陽里)[5]는 민호(民戶)는 67호, 남자는 151명, 여자는 217명이며, 산양리(山陽里)[6]는 민호(民戶)는 56호, 남자는 130명, 여자는 195명이다.[7]

1904년『삼군호구가간총책 三郡戶口家間總册(旌義郡, 左面)』[8]에도 화남리(花南里)[9]는 연가(煙家) 33호이다. 남자 43명과 여자 92명을 합하여 135명이고 초가(草家)는 56칸이다.

수월리(水月里)[10]는 연가(煙家) 92호이다. 남자 288명과 여자 297명을 합하여 585명이고 초가(草家)는 173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11]

1910년 한일합방 당시 수산1리 호수는 220세대, 총 인구수는 1,092명(남자 533명, 여자 559명), 수산2리는 호수 41세대, 총 인구수는 235명(남자 112명, 여자 123명), 황무수(黃茂藪)[12]는 호수 5세대, 총 인구수는 18명(남자 9명, 여자 9명)이었다.[13]

수산1리의 경우 최근 2020년도의 세대수는 502호이다. 인구수는 남자 530, 여자 449명으로 모두 979명이다. 인구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인구수가 1,500명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800~900명대를 유지하였으며, 5년 전부터는 다시 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세대수는 2010년대 초반까지는 줄곧 300세대 후반을 유지하다가 2014년부터는 400세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수산2리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는 300명 이하의 인구수를 유지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4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세대수는 196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초반까지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금은 3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살이에 대한 열풍과 귀농 귀촌의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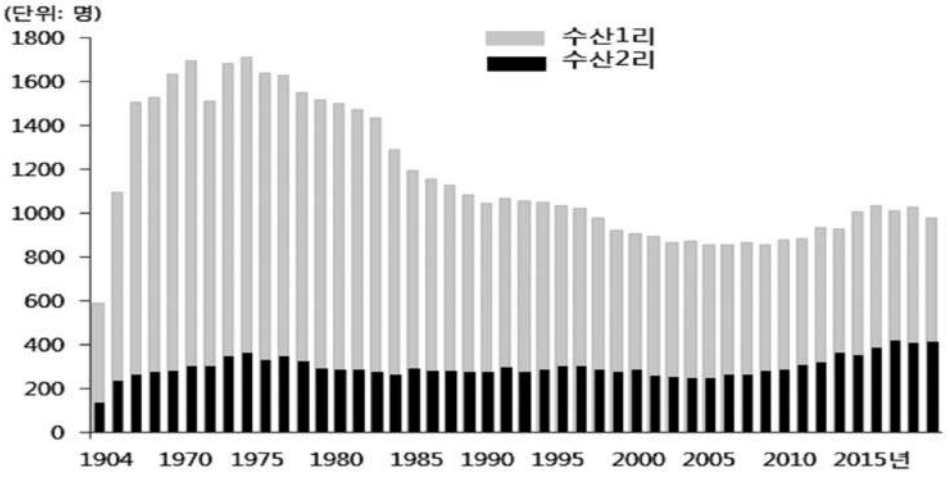
5) 新陽里(신양리): 지금의 수산1리이다.
6) 山陽里(산양리): 지금의 수산2리이다.
7) 濟州邑誌 旌義縣 坊里(1785), 성산읍역사문화지(제주특별자치도, 2010)
8) 三郡戶口家間總册(旌義郡, 左面): 1904. 1월 제주, 대정, 정의 3군(郡)의 호구와 집의 형태를 기록한 총책(摠册)으로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9) 花南里(화남리): 지금의 수산2리이다.
10) 水月里(수월리): 지금의 수산1리이다.
11) 三郡戶口家間總册(1904)
12) 황무수(黃茂藪): <황무순이 가름> <황무술이>라고도 하며, 궁대오름 북쪽 수산리 4,697 일대이다.
13) 1910년 黃茂藪의 인구수를 수산2리와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黃茂藪는 행정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黃茂藪 인구수를 통계자료에는 수산2리에 포함시켰다. 단, 역사적으로 한 동네를 이루고 있었던 관계로 黃茂藪의 인구는 참고용으로 기록할만하다. 제주고지도인『성산포 城山浦(조선총독부), 1918)』에도 이름이 표기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제주지역 내 읍, 면, 동지역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구소멸위험지수)은 우리마을이 포함된 성산읍은 소멸위험진입 단계(0.2~0.5)인 0.39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수산2리의 인구수는 남자 212명, 여자 201명으로 모두 413명이다.

▼ 연도별 마을의 세대 및 인구수 변화(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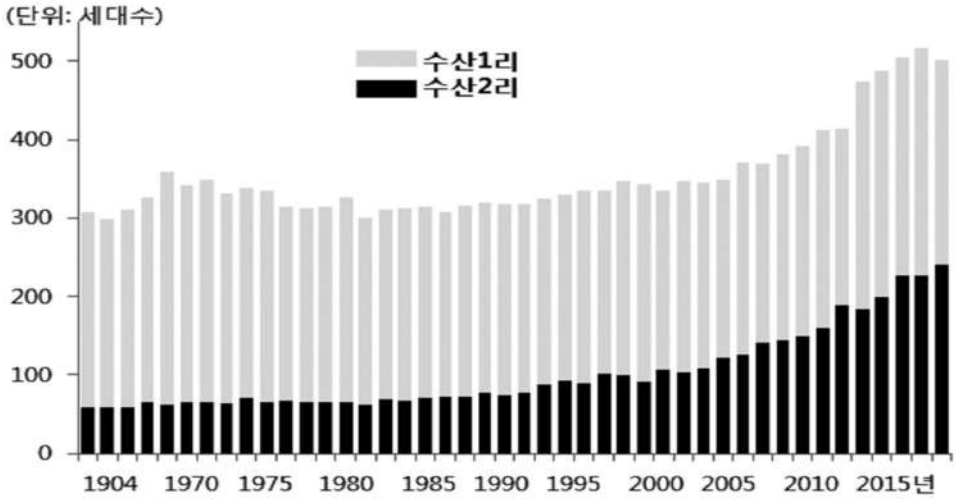
구분 / 연도	수산1리				수산2리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계	남	여
2020	502	979	530	449	240	413	212	201
2019	516	1,024	537	487	227	409	209	200
2018	505	1,012	533	479	226	420	223	197
2017	488	1,030	529	501	199	386	193	193
2016	474	1,006	525	481	184	350	176	174
2015	414	924	473	451	189	361	183	178
2014	412	932	468	464	160	317	163	154
2013	391	885	451	434	150	306	164	142
2012	381	877	452	425	145	283	144	139
2011	369	852	447	405	141	277	141	136
2010	371	864	446	418	125	262	137	125
2009	349	854	440	414	122	260	139	121
2008	345	854	434	420	108	244	130	114
2007	347	873	441	432	104	246	136	110
2006	335	867	426	441	107	252	135	117
2005	344	892	434	458	92	259	134	125
2004	347	905	445	460	100	287	147	140
2003	334	923	443	480	101	275	142	133
2002	334	974	474	500	89	284	146	138
2001	329	1019	494	525	93	302	149	153
2000	325	1,034	508	526	88	303	152	151
1999	318	1,047	506	541	78	283	140	143
1998	318	1,054	503	551	74	273	134	139
1997	319	1,066	510	556	78	297	148	149
1996	316	1,046	505	541	72	271	147	124
1995	308	1,081	523	558	73	274	147	127
1994	315	1,127	546	581	70	277	149	128
1993	312	1,153	563	590	67	278	149	129
1992	311	1,194	586	608	68	289	150	139
1991	301	1,290	640	650	62	260	136	124

구분 / 연도	수산1리				수산2리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계	남	여
1990	327	1,432	715	717	65	272	139	132
1989	315	1,473	721	752	66	284	141	143
1988	312	1,500	721	779	66	286	141	140
1986	315	1,514	726	788	67	289	150	139
1985	335	1,550	741	809	66	325	163	162
1983	338	1,626	799	827	71	346	175	171
1982	331	1,641	788	853	63	329	166	163
1980	348	1,712	842	870	65	360	181	179
1977	341	1,682	795	887	65	344	178	166
1975	399	1,513	-	-	62	304	-	-
1969	327	1,694	785	909	65	301	135	166
1966	311	1,634	736	898	59	281	121	160
1965	298	1,527	688	839	58	272	119	153
1964	308	1,504	670	834	58	264	112	154
1910[14]	220	1,092	533	559	46(5)	253(18)	121(9)	132(9)
1904[15]	92	585	288	297	33	135	43	92
1785[16]	67	368	151	217	56	325	130	195



▲ 190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산1·2리 마을의 인구수 변화

14) ( )의 숫자는 1910년 황무수(黃茂藪) 동네의 세대 및 인구수이다.
15) 三郡戶口家間總册(1904). 이때의 마을 이름은 수산1리는 水月里, 수산2리는 花南里이다. 당시의 인구수가 6년 만에 약 500명이 갑자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16) 濟州邑誌(旌義縣 戶口總數 旌義, 1785): 이때의 마을 이름은 수산1리는 新陽里, 수산2리는 山陽里이다.



▲ 190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산1·2리 마을의 세대수 변화

문화재 등 자생 단체 현황 우리마을은 전통적으로 축산 및 농업에 치중해왔던 중산간 마을로 기관 또는 자생단체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유일하게 수산보건소가 그나마 공공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마을 운영을 위해 탄생한 자생단체가 전부이다. 문화재는 수산진성이 있으며, 민속자료로 지정된 <울렛ᄆᆞ르 하로산당>이 있다. 동굴은 천연동굴로 지정된 수산동굴을 비롯하여 8개가 분포하고 있다. 오름은 대왕산을 비롯해 모두 5개가 있으며, 연못과 습지는 수산한못을 비롯해 27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일부 연못과 습지에서만 형태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보호수는 원래 4그루였는데, 현재는 2그루만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기관 및 자생단체는 수산초등학교를 비롯해 20개가 있다. 비석은 공덕비, 기념비를 포함해 26개가 소개되고 있다.

▼ 문화재, 민속자료 및 기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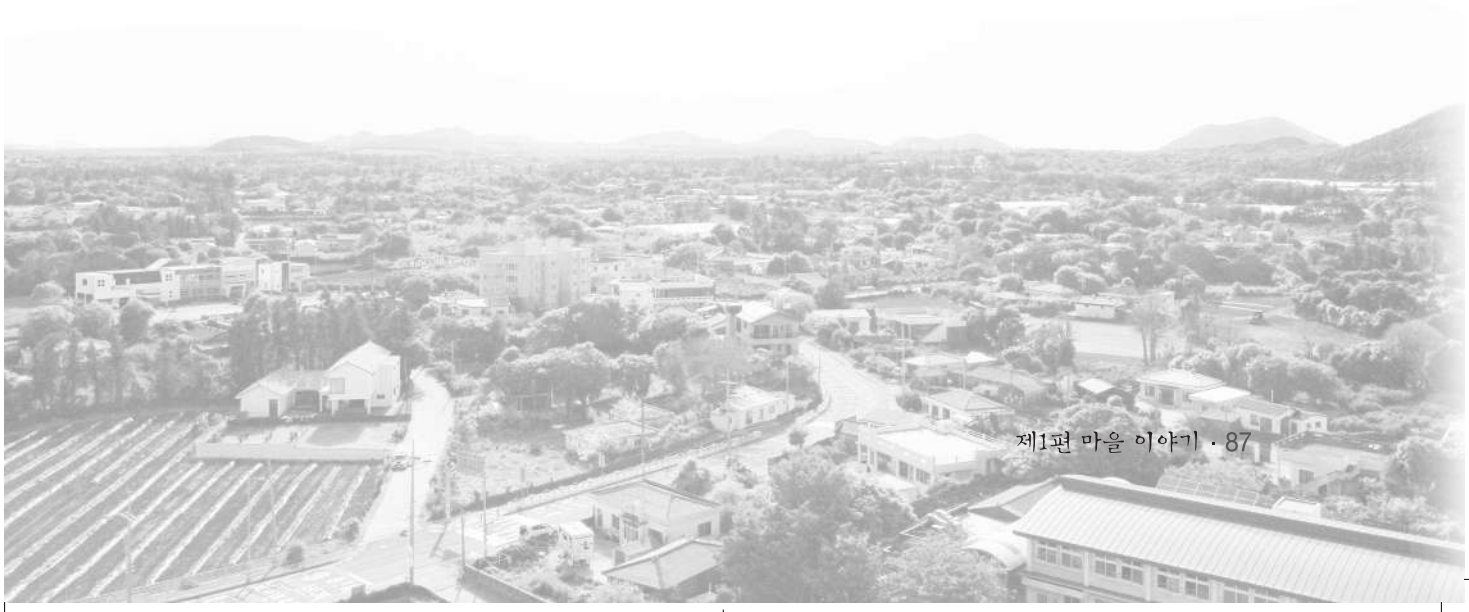
문화재	민속자료	비석	연못[17]	동 굴		오름	연못, 습지	보호수[18]
				천연기념물	비지정동굴			
1	1	26	27(11)	1	7	5	27	4(2)

17) 1970년대까지는 연못과 습지 등이 27군데에 있었으나, 지금은 11개의 연못과 습지에서 형태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8) 1982. 10. 22일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모두 4그루였다. 2007년에 2그루가 태풍으로 고사되어 현재는 2그루만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 기관 및 자생단체 현황

기관 및 단체명	설립연도	주요기능
수산초등학교	1946. 12. 1.	초등 의무교육
병설유치원	1981. 3. 10.	취학 전 아동 기초교육
수산보건진료소	1984. 10. 4.	1차 보건의료기관
수산체육공원	2001. 10. 28.	복합 체육 문화 교류장으로 활용
자연생태공원	2017.	자연생태 체험 및 관람
미타요양원	2006. 6. 28.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보석사	-	종교활동 및 재능기부 행사 등
남제주교회	1985. 4. 5.	종교활동 및 재능기부 행사 등
수산1리 경로당	1983. 3.	회원들의 건강 증진 및 마을발전 도모
수산2리 경로당	1981. 8. 25.	회원들의 건강 증진 및 마을발전 도모
수산1리 부녀회	1960년대	회원 상부상조 및 효문화 장려
수산2리 부녀회	-	회원 상부상조 및 효문화 장려
수산1리 청년회	1979.	회원 상부상조 및 마을발전 지원 사업
수산2리 청년회	1980년대	회원 상부상조 및 마을발전 지원 사업
수산축구회	1999. 6. 13.	회원 상부상조 및 건강 증진
재서울 수산향우회	1995.	회원 상부상조 및 마을발전 지원 사업
재제주시 수산1리 향우회	1994.	회원 상부상조 및 마을발전 지원 사업
재제주시 수산2리 향우회	1990.	회원 상부상조 및 마을발전 지원 사업
재고성 수산향우회	1987.	회원 상부상조 및 마을발전 지원 사업
수산 곶자왈 환경감시단	2006.	수산곶자왈 지킴이 및 불법행위 감시



제3절 마을 주민의 생활사[19]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일이 구분되어 있었다. 남자는 우경(牛耕), 파종(播種), 가옥건축 및 수선, 우마차(牛馬車)의 취급, 부역(賦役) 등이고 여자는 가사(家事), 재봉(裁縫), 육아(育兒) 등이다. 이외에도 가계(家計), 농작(農作) 등 일체의 일을 하였던 관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여자들의 문화생활은 보잘것없고 발달하지도 않았으며, 내외의 풍(風)도 없었다.[20]

생활면에서는 몽고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들 나라와 비슷한 풍속과 풍습, 언어, 문화 등은 아직도 우리 생활 주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몽고가 남긴 풍습은 말과 관련된 목축 및 사냥, 농업문화에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풍습은 아기 업는 법(부아법, 負兒法, 아이를 끈으로 두 어깨에 메어 업는다), 짐 지는 법(부하법, 負荷法, 짐을 끈으로 두 어깨에 메고, 머리에 이지 아니한다), 바느질(運針法, 운침법)할 때 바늘을 잡는 방법이 일본과 같다. 이 외에도 돼지의 인분(人糞) 활용법, 울타리를 돌담으로 만드는 것은 일본에서도 특히 오키나와와 공통점이 많다.

광복 이전의 주민 생활 우리 마을의 선조들은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온 힘을 합하여 잡목과 잡초를 베고 땅을 일구며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협동정신과 개척정신을 발휘하여 오늘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평소에는 목화와 마(麻)를 재배하여 옷감을 짜 입었고 우리 조상들이 주로 입었던 감물을 들여 만든 갈옷은 오늘날에도 작업복으로 이용하고 있다. 겨울철 방한복은 개, 노루 등의 가죽을 이용해서 가죽옷을 해 입었다. 비 올 때 입었던 우장이나 짚신, 멍석, 맹탱이 등은 우리 고장이 밭벼를 재배하였기 때문에 그 재료가 풍부하여 여유 있게 활용하여 만들 수 있었고 대나무로도 여러 가지 생활 용구를 만들었다.

농산물로는 조, 산디(山稻, 산도), 콩, 팥, 메밀, 피, 고구마, 보리 등을 경작하여 식량을 얻었다. 이 중에서 조, 보리, 고구마는 양질의 토지인 마을 내의 경작지에서 재배하였고 산도, 피 등은 비교적 척박한 땅에서도 경작이 가능하여 마을 밖에서 재배하였다.

대표적인 농사기구로는 잠대와 호미, 낫 등을 사용하여 원시적인 농사를 지었다.

---

19)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서귀포시 Ⅲ, 성산읍, 표선면, 2014)를 일부 인용하였다.
20) 濟州道 隨筆(石宙明 著, 서귀포문화원 연구총서, 2008)

또한 정미(精米)는 남방아나 맷돌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점차 동네별로 연자방아를 만들어 정미소가 생길 때까지 이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란 매우 힘들었다. 척박한 땅은 농약과 비료가 없는 당시로서는 퇴비나 두엄[21]도 충분하지 못하여 자연재해가 생기면 식량난에 허덕이기도 하였다.

농사일을 할 때 사용했던 갈옷, 짚신, 멍석, 대구덕과 비 올 때 입는 우장 등은 손수 만들어 자급자족하였다.

식수는 자연적으로 빗물이 고이는 곳을 돌담으로 둘러싸서 봉천수를 만들어 음용했으나, 장기간 가뭄이 닥치면 식수난을 겪게 되어 부녀자들은 물허벅을 지고 인근 마을 고성리나 오조리 등 해안가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으며, 일부는 소에 물허벅을 싣고 운반하기도 하였다. 소나기와 같은 적은 양의 비만 와도 냇창이나 돌빌레에 고인 물을 서로 앞다투어 길어가곤 했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의류와 일용품 등의 공산품 공급이 점차 나아지는 듯 하였으나 대륙 정벌의 야심을 품은 일본이 1935년 중국 침공과, 1941년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여 전시 상황으로 이어져 의류와 일용품은 구입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신발류 등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고무신이 나왔으나 전시여서 구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남자들은 들녘에 나가 칡을 걷어다가 짚과 섞어 짚신 삼기에 여념이 없었다. 당시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에 다니던 학생들까지도 짚신, 조리, 게다, 나막신 등을 신고 통학하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군량미와 군수품 조달을 위하여 식량과 동제품(銅製品, 놋그릇과 제기) 및 가축 등을 공출(供出)형식으로 강탈해 갔으므로 생활고는 매우 심했다.

주택은 대개 석축으로 쌓고 그 석축벽에 흙칠을 하고 지붕은 새(茅, 모)로 덮고 각단(길이가 짧은 띠)으로 만든 굵은 동아줄로 지붕을 그물처럼 얽어 맨 초가집에서 살았다. 내부의 가름벽은 나무와 대를 이용하여 벽을 만들어 흙을 발랐는데, 주택의 구조는 대부분 3간으로 한쪽은 구들과 고팡(庫房, 고방)을, 가운데 칸은 상방, 다른 한쪽은 부엌으로 했으며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주채를 4간으로 하고, 모커리(곁채)라 하여 3간 집을 지어 이용하기도 하였다.

인접 마을과는 4~5km 떨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도보로 왕래하였고 간혹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 신발은 일제말기에 고무신이 나왔으나 주로 스스로 제작한 남신(나막신)이나 짚신을 신고 다녔다.

---

21) 두엄: 풀, 짚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썩힌 거름을 말한다.

어두운 밤에는 <솔칵>이나 들기름으로 등잔에 불을 밝혔고 양초가 나왔으나 제사 때 이외에는 평소에 쓸 수가 없었다. 석유가 보급되면서 <각지불>이 등장하였고 점차 <호야>라는 유리막을 사용한 램프불을 이용하여 전기가 보급될 때까지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주민 생활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박탈한 후 사회의 개화 속도는 빨라지고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일본인들의 폭정과 강압에 의한 것이었기에 주민들의 삶은 공포와 억압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제주도의 도로망은 열악하였으며, 노폭은 좁고 하천을 횡단하기가 매우 불편하였다. 1912년부터 1913년까지 도민을 동원하여 해안마을을 연결하는 일주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어서 1914년부터 1917년까지 3년 계획으로 도로폭 6m로 확장하게 되는데 수산 주민들도 인력 동원을 많이 하게 되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에서는 토지 면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 세부측량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지방이 제주도였는데, 같은 해 5. 15일까지 토지를 신고토록 하였으나 주민들이 신고요령을 잘 모르거나 토지세(土地稅)가 많을 걱정을 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수산리에서는 측량 당시 측량기사에 대하여 비협조적이어서 황무지와 일반 임야의 구분이 없이 측량하고 등급 사정을 하였는데도 높은 등급으로 사정되어 많은 납세의 부담을 지기도 했다.

광복 후에도 세제(稅制) 체계가 바로 잡힐 때까지 다른 지방에 비해 많은 납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인 측량기사가 측량하면서 지주의 토지 소유에 관계없이 자기 의사대로 측량해 버린 관계로 현재도 토지 구획과 진입로 등에 대해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으며, 황무지와 산이 많은 수산의 경우는 임야, 산, 황무지를 구분하여 측량되지 못해서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11. 3월에 민적법이 공포되었다. 민적법의 시행은 호구조사와 신분 신고로 시작되었다. 당시는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 측량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민적부에는 주소를 통(統), 호(戶)로 표기하였다.

1916. 1월에는 토지 소유주와 지적이 고시됨에 따라 1918년 토지를 측량하여 돌담을 쌓아 밭의 경계를 구분하게 되었다. 1918년 통호폐지법(統戶廢止法)에 의하여 지금의 지번을 기재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1922년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이 공포되어 민적법이 호적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때부터 지방법원에서 호적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나 광복 이후까지 계속되다가 1960년 신호적법이 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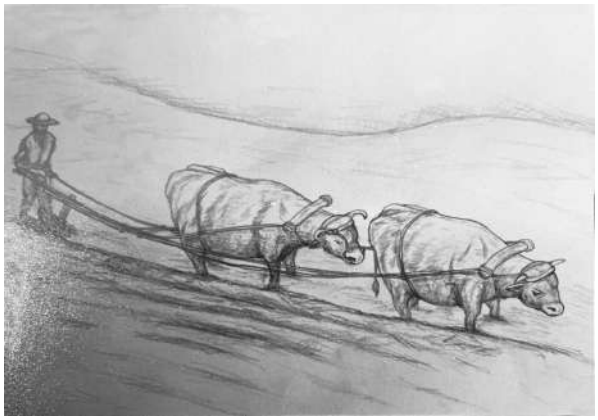
1939년 말부터는 황국신민의 칙서라는 것을 제정하여 학생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외우도록 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아침 조회 때, 일반인은 예식 때에 인원을 동원하여 봉창하도록 하였다.

1944년 말 일본 해군이 전멸되고 1945년에는 제주도 전역에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6만 명의 일본군을 제주도에 주둔시키게 된다.

6·25전쟁 후의 생활 제주 4·3사건과 6·25전쟁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온 마을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말았다. 군복무를 마치고 귀가한 장병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의식주 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출정한 장병들이 본격적으로 귀향하게 되는 1955년부터 마을의 재건을 위한 조직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나 워낙 황폐화되고 낙후된 현실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실행할 만한 일거리가 있을 리 만무했다. 먹는 문제만이라도 해결되지 않고는 살기 힘든 상태였다. 그래서 우선 식생활문제에 역점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리왓[22]을 갈아 연차적으로 메밀과 산디(山稻, 산도)를 재배하면서 완전한 숙전(熟田)[23]을 만드는데, 그나마 운이 좋아서 비옥한 토지를 개간한 사람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으나 척박한 토지를 개간한 사람은 피나는 노력을 해도 노력에 비해 수확량은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고구마를 재배하는 등 환금작물(換金作物)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여유가 생기는 집안은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말과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또한 일부 젊은이들은 목공과 석공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구덕을 짜는 일을 하는가 하면 타지역으로 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우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 저리왓 갈이(과거에는 소 두 마리를 이용하여 저리왓을 경작하였다. (자료제공 김문식)

하지만 1952년부터 1959년 사이에 사라호 태풍 등 여섯 차례의 태풍이 엄습하는 등 연속적인 천재지변으로 어떻게든 살아 보려던 의지를 송두리째 짓밟고 말

22) 저리왓: 소 두 마리를 이용하여 거친 들판을 갈아 엎은 밭을 말한다.
23) 숙전(熟田): 잘 개간된 밭을 말한다. 해마다 채소와 곡식을 경작하는 땅. 논처럼 물이 고이지 않는 경지. 화전(火田)으로부터 시작되어 휴한전(休閑田)을 거쳐 숙전(熟田)으로 변화하였다.

았다. 이로 인하여 식량난은 극도로 악화되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지만 골고루 손이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된 국토를 정리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외부의 원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미국 등지에서 굳어버린 분유와 강냉이 가루 등의 원조를 받았으나 허기진 배를 채우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쑥과 무, 파래와 톳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연명하기 일쑤였다.

1960년대가 되면서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1962년에 기존의 영농기술원이 농촌진흥원으로 개편되면서 시군에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축산 및 고구마, 유채, 콩 등에 대한 증산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면서 소위 녹색시대로의 변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주의 오름과 들에 무성하게 자라는 새(茅, 모)를 이용하여 초석(草席, 돗자리)을 만들어 파는 일이 새로운 부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의 가격으로 한 자리에 200원 내외였는데, 새벽부터 밤늦도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노력을 하면 한 달에 2,000원 내외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당시로서는 큰 소득원이었다. 1960년 후반에 누루못 옆에 지하수 관정을 파고, 1968년에 마을 공동 수도가 놓여 물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1969년에 전기가 가설되면서 문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70년대 이후 현재의 생활 19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으로 마을길이 포장되고, 초가지붕이 개량되는 등 농촌 근대화 열풍이 불었다.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제주도의 모든 마을은 외형적으로 변화하였지만,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문화가 아울러 파괴되어 버리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였다. 경운기가 보급되면서 우마차가 사라지고,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일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마을의 진입로 전 구간과 마을 안길이 포장되었고 버스 운행 횟수도 급격히 증가되어 1일 14회 왕복 운행하였다. 가옥도 점차 현대화 구조로 개축되어 가기 시작하였고, 재래식 화장실인 통시가 점차 사라지고 수거식 변소로 바뀌게 되었다. 1986년에는 자동식 전화 160여 대가 가설되어 전국 각 지역은 물론 외국에까지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감귤산업이 제주도 농가소득의 50~60%를 점



▲ 수동식 전화기이다. 오른쪽 손잡이를 돌리고 수화기를 들면 교환원이 연결되는데 통화 상대방의 이름을 알려주면 상대방을 연결해 준다.

유할 정도로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주도 경제의 큰 축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 1970년대 중반에 보급된 경운기

198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가정에 TV, 전화,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난방용 보일러가 보급되면서 생활이 무척 편리해 졌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1990년대 시작된 민선자치의 시행으로 주민들의 참여 자치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고,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일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관광의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 IMF 확대 등으로 관광산업과 농촌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농업부문에서는 지역별 특화작물 재배, 시설 재배 및 지능형 농업기술의 보급, 관광부분에서는 기존의 자연경관 감상형 관광에서 레저, 휴양, 체험형의 관광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1990년 중반기에는 타이탄, 세렉스라고 하는 농사용 작업 차량이 널리 보급되어 농산물 운반, 근거리 이동 등에 많이 이용되었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바뀌고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다.

2006년에는 수산1리가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지역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 활로를 개척하게 되고, 수산2리는 2009년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선정되어 풍력단지, 오름과 곶자왈이 함께하는 곶자왈 생태길을 조성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2009, 2010년에는 수산리 마을공동목장에 한국남부발전이 2MW급 풍력발전기 10개를 설치하여 연간 20MW의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2011년부터는 성산부두～번영로 간 시외버스노선이 신설되었다. 수산1·2리를 경유하여 운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제주시로 이동할 때는 고성리로 이동하여 다시 버스를 환승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2시간 이상의 소요시간이 걸리던 것이 1시간으로 줄어 듦으로서 성산읍내 어느 마을보다도 교통 혜택을 많이 받게 되었다.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라 개인마다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도로망이 확충되고 대중 교통이 편리해 짐에 따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도 경제작물 재배와 함께,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4절 행정 약사

수산1리 역대이장 현재까지 51대 김문식 이장(里長)을 포함하여 경민장(警民長) 2명, 구장(區長) 7명, 이장(里長) 30명 등 총 39명이 마을 책임자를 역임하였다.


▲ 제 51대 김문식 이장

마을의 운영과 재정을 책임졌던 지금의 마을 이장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수산1리의 경우 마을에서는 오찬호 구장부터 초대 이장으로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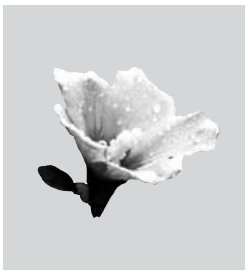
경민장은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용어로 지금의 이장에 해당하며, 1910. 8월 한일 합방 후 당시 경민장이 이장으로 바뀌었다. 경민장[24]은 오창조, 고승은이며, 이들에 대한 기록과 활동상황은 찾아볼 수가 없다. 1916. 10월부터 면제도(面制度) 시행규칙에 따라 이장을 구장[25]으로 부르다가, 해방 이후 1946년도부터 이장 명칭을 사용해왔다. 구장은 오찬호(초대, 6대)에서 고진중(9대)까지 7명이 재임을 했으며, 이들의 활동 기간은 대략 시기적으로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로 추정된다. 1916년부터 1945년까지 30년간 사용했던 구장의 명칭이 1946년부터 이장으로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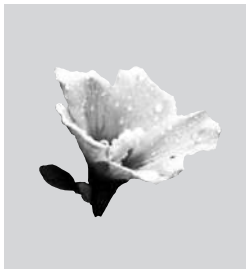
24) 警民長(경민장): 조선 시대 각 마을 3所任(리정 里正, 경민장 警民長, 기찰장 譏察將) 중 하나로 마을의 어른 역할을 했다. 토지거래 등에 보증인과 필집(筆執, 증인으로서 증서를 쓴 사람)의 역할을 주로 맡았으며, 간단한 소송도 주관하기도 하였다. 지금의 마을 이장(區長)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警民長: 1894~1909, 里長: 1910~1915, 區長: 1916~1945, 里長: 1946~)

25) 區長(구장): 1916년 일제 강점기에 面制의 시행과 토지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이장제도를 폐지하고, 읍·면장 밑에 보조기관으로 洞長과 里長을 묶어 區長이라고 불렀다. 區長은 정, 동, 리에 주소를 둔 자를 명예직으로 임명하여 읍·면 사무 중 정, 동, 리에 관한 것을 보조하였다. 區長은 1945. 8. 15일 해방될 때까지 면장의 명을 받아 면의 사무를 보조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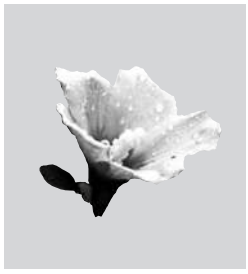
▼ 수산1리 경민장, 구장 및 역대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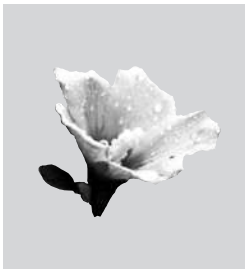
경민장
오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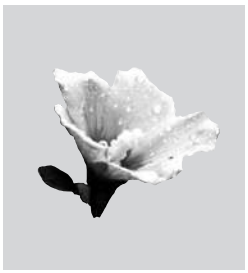
고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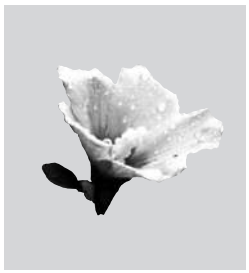
구장
초대, 6대 오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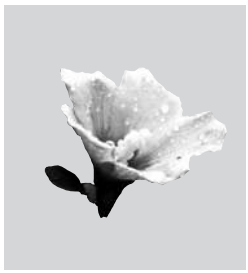
2대 고명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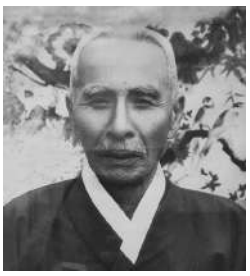
3대 고충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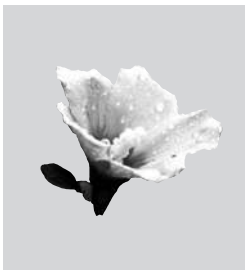
4대, 7대 고승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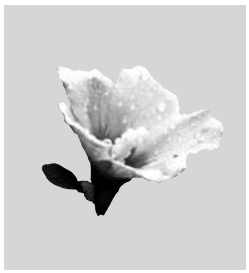
5대 오응주



8대 고명순



9대 고진중



이장
10대 김태욱



11대 조태흡



12, 21대 오희남



13대 김정옥



14대 고남용



15, 19대 고몽렬



16대 김석보



17대 오정국
1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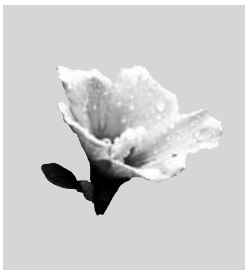
18대 고창윤



20대 오성표



22대 강순택
1958~1959



23대 고인길
1960



24, 31대 고창권
1961~1962
1973~1974



25대 강경협
1963~1964



26대 김태표
1965



27대 강정원
1966~1967



28대 김태완
1968~1969



29대 강범식
1970~1971



30, 35대 강수용
1972
1982~1986



32, 36대 조명룡
1975
1987~1992



33대 강자욱
1976~1978



34대 김태율
1979~1981



37, 38대 한영희
1993~1994
1995~1996



39, 40대 오인수
1997~1998
1999~2000



41, 42대 고원호
2001~2002
2003~2004



43, 44대 강현건
2005~2006
2007~2008



45, 46, 49대 김석범
2009.2.~2011.1.
2011.2.~2013.1.
2016.2.~2018.1.



47, 48대 오찬율
2013.2.~2015.1.
2015.2.~20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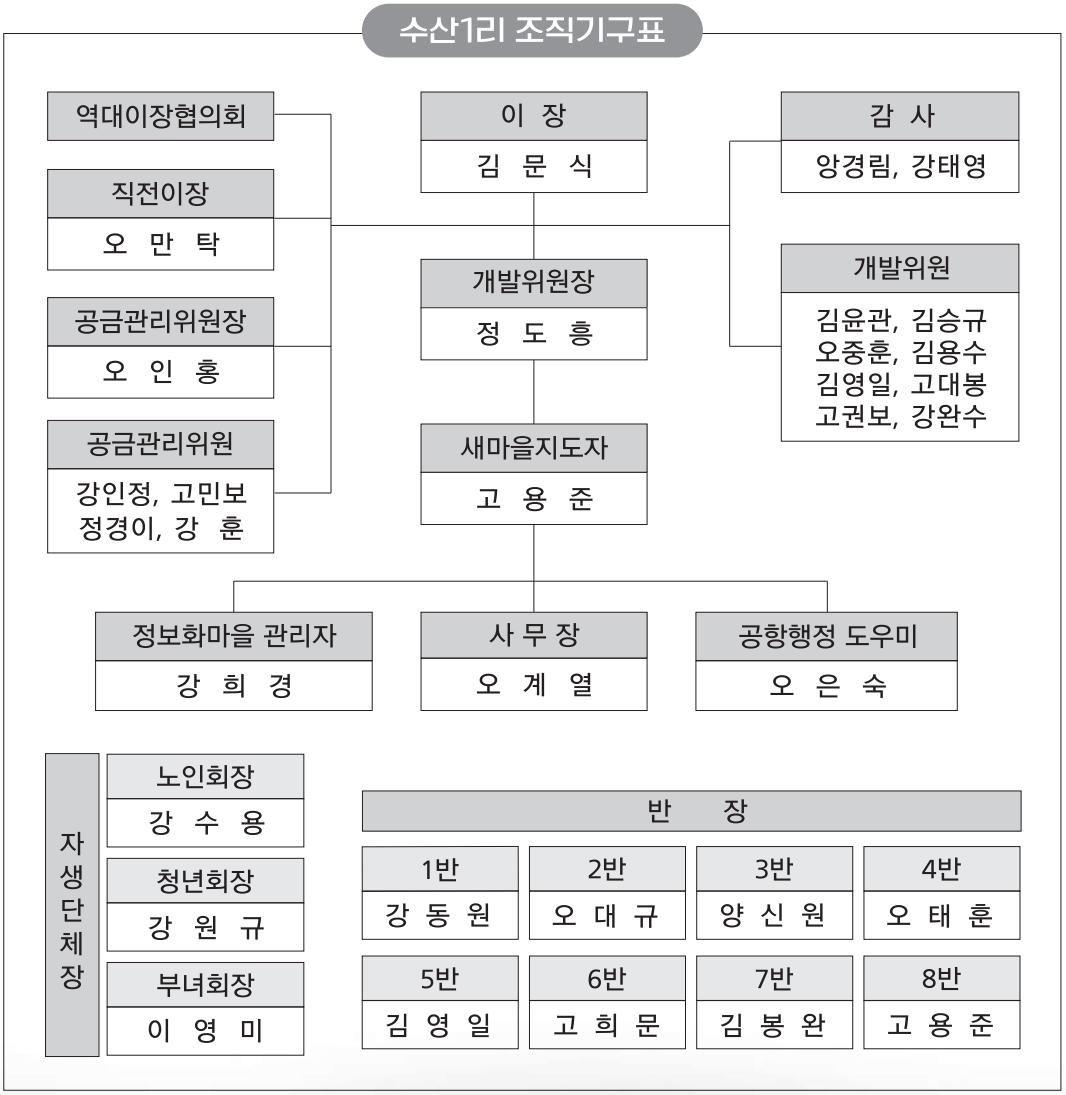


50대 오만탁
2018.2.~2020.1.



수산1리 행정조직(2021년) 수산1리의 조직은 이장(1명)을 중심으로 역대이장협의회, 직전이장(1명), 공금관리위원장(1명), 공금관리위원(4명), 감사(2명), 개발위원장(1명) 개발위원(8명), 새마을지도자, 정보화마을관리자, 사무장, 공항 행정도우미 각각 1명과 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생단체는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수산축구회 등이 있다.

▼ 수산1리 행정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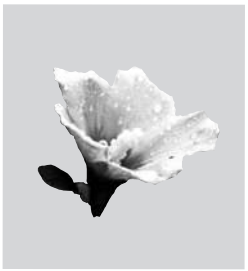


수산2리 역대이장 구장(區長)은 오창률, 고보국, 고두원, 오명표 4명이 재임을 했으며, 초대 이장(里長)은 고두원(재임기간: 1956. 3. 1.~1957. 5. 10.)이다. 현재까지 34대 오동현 이장을 포함하여 구장 3명, 이장 24명 등 총 27명이 마을 책임자를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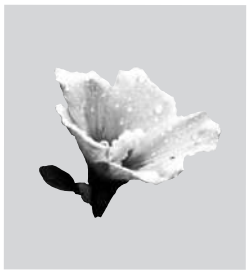


▲ 제 34대 오동현 이장

▼ 수산2리 구장 및 역대이장



구장
1대 오창률



2대 고보국



3대 구장, 초대이장
고두원
1956.3.1.~1957.5.10.



4대 오명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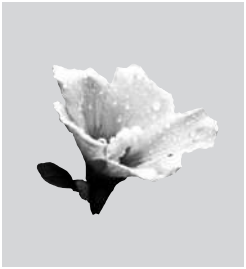
이장
2대 오관율
1957.5.11.~1960.6.15.



3대 고창인
1960.6.16.~1961.5.20.



4대, 12대 양명보
1961.5.21.~1963.2.10.
1977.2.4.~1983.2.28.



5대, 7대 오남관
1963.2.11.~1965.3.31.
1967.4.10.~1972.2.28.



6대 강승호
1965.4.1.~196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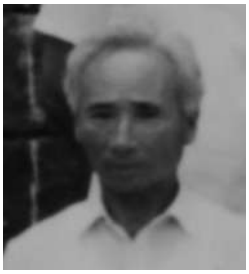
8대 고대선
1972.2.29.~1972.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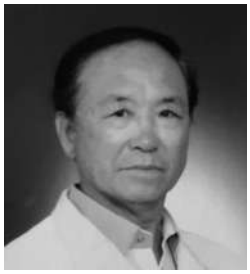
9대 오윤석
1972.3.3.1~973.2.14.



10대, 14대 오남종
1973.2.15.~1974.7.31.
1984.2.20.~1986.3.15.



11대 고남천
1974.8.1.~1977.2.3.



13대 강승진
1983.3.1.~1984.2.19.



15대 고영훈
1986.3.16.~1988.2.16.



16대 오영두
1988.2.17.~1990.1.20.



17대 오성옥
1990.1.29.~1991.5.10.



18대 고성관
1991.5.11.~1993.9.9.



19대 오영조
1993.9.10.~1996.2.21.



20대 강평관
1996.2.22.~1997.2.4.



21, 22, 27대 고민호
1997.2.5.~2001.1.26.
2008.3.4.~2009.1. 9.



23, 24대 고갑권
2001.1.27.~2003.1.17.
2003.1.18.~2005.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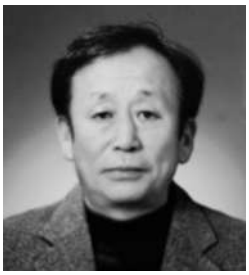
25대 오성익
2005.1.24.~2007.2.1.



26대 오성환
2007.2.2.~2008.3.3.



28, 29, 30, 33대 양만길
2009.1.10.~2015.1.24.
2019.1.25.~2021.2. 3.



31, 32대 고대인
2015.2.25.~2017.1.12.
2017.1.13.~2019.1.24.

수산2리 행정조직(2021년) 수산2리의 조직은 이장(1명)을 중심으로 직전 이장(1명), 감사(2명), 개발위원장(1명) 개발위원(6명), 새마을지도자, 사무장, 각각 1명과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생단체는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이 있다.

▼ 수산2리 행정조직도



제5절 기관 단체 및 공공 시설

■ 수산1리 마을회관



▲ 수산1리 마을회관 전경

역사 및 현황 우리마을의 운명과 맥을 같이 해온 향사(鄕舍)[26]의 원래 위치는 수산리 1,199-1번지(1,111㎡, 약 336평)이다. 수산리 공회당(公會堂)은 1916년 당시 구장인 오찬호가 건축 책임자가 되어 마을 주민의 찬조금으로 건축되었고, 총회회의(總會會議), 지인학숙당(知人學塾堂),[27] 유서당(幼書堂),[28] 탁아소(託兒所) 등 후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되었다. 광복과 더불어 마을 회의를 집행하는 장소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1948. 5. 10일 당시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산에서 내려온 무장대에 의해

26) 향사(鄕舍): 1970년대 초반까지는 지금의 마을회관 또는 이사무소를 鄕舍라고 불렀다.

27) 지인학숙당(知人學塾堂): 1920년 당시 수산리 공회당에 지인학숙당(知人學塾堂)이란 간판을 걸고 구학문과 근대 학교교육을 겸한 2년제 과정의 학숙당을 설립해서 초대 선생에 신구학문에 능통한 오희평(吳熙平)을 추대하고 인재 양성에 주력하여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

28) 유서당(幼書堂): 1935년경 제주도 학무위원(學務委員)이었던 김정옥(金丁玉)이 앞장서서 〈幼書堂〉이란 유치원 설립 인가를 제주도사(濟州道司)로부터 받고 그가 후원회장이 되어 2년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교에 취학 전인 어린이 또는 학교에 취학 못 하는 아동을 입학시켜서 교육을 시켰다. 지금의 유치원 과정이다.



▲ 1980년(이장 김태율)에 새마을 회관을 준공하여 2006년까지 수산1리 복지회관으로 사용되었던 옛 건물이다.

불태워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화재 사건이다. 그 후 경찰이 주둔하기 위하여 초가집을 축조하였다가 사건이 진압되자 다시 석축 및 함석지붕으로 건축하여 향사로 환원되었다.

1976년에 원인 모를 2차 화재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에 많은 문서와 자료들이 불에 타 없어지는 불행한 일을 겪었다. 약 4년 후인 1980년 당시 김태율 이장과 총무 강자욱, 재정 한영희, 사업 강경협 중심으로 새마을 회관을 1층 30평, 2층 20평 규모로 같은 위치에 건립하게 되었다. 이때 건축 소요자금은 남군 500만 원, 특별지원금 2천 3백만 원을 지원받아 건축하게 되었는데, 재일교포 및 독지가들의 성금과 모든 마을 주민들이 물심양면으로 호당 3만 원씩 성금을 모았다.

당시 새마을 회관 건축을 위해 성금을 기탁한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2개의 공덕비(功德碑)가 수산리민 이름으로 1980년에 세워졌다. 당시 건축물 시공은 목수 고태봉이 주도하였으며, 이 건물은 2006년까지 약 30년간 사용되었다.

마을의 살림살이와 규모가 커지고 총회 및 각종 마을행사 등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2006년에 43대 강현건 이장 재임 시 성산읍 서남로 17번지 2,346㎡를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492㎡, 2층 규모의 현대식 복지회관을 건립하였다. 1층은 총회 및 대내외 행사, 마을 주민 결혼식 피로연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2층에는 사무실을 비롯해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회관은 2006. 6월에 착공하여 2007. 1. 24일에 준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억 1천만 원으로 이중 행정지원금 1억 9천만 원, 자부담 3억 2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자부담은 주민들의 크고 작은 정성과 성의로 모아졌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물 동쪽 마당 앞에 명문과 함께 복지회관 건립기념비가 세워졌다.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강현건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추진위원으로는 고창권, 김원옥, 한영희, 한광금, 고대삼, 고원호, 오인홍, 강성만, 김윤환, 김석범, 고대봉 등 13명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 수산2리 마을회관



▲ 1998년 고민호 22대 이장 당시에 신축된 지금의 수산2리 마을회관

역사 및 현황 수산2리 향사가 세워진 것은 오창률 구장이 수산리 2,380-2번지를 마을에 기증하여 탄생하게 되었으나, 향사 건축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1968년 당시 수산2리 향사 수리를 위한 성금을 기탁한 공덕을 기려 세워진 在日僑胞蔡恩日女史碑(재일교포채은일여사비)가 명문과 함께 세워져 있다.

1978년 양명보 12대 이장 재직 당시 수산2리 마을회관이 1층, 25평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1998년 고민호 이장 당시에 지금의 수산2리 마을회관을 건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지 810㎡에 건축물의 규모는 299.7㎡이다.



▲ 1978년 양명보 12대 이장 재직당시 수산2리 마을회관이 두번째로 신축되었다.



▲ 현재 신축중인 수산2리 마을회관

현대식 마을회관 건립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발전하면서 현대식 시설을 갖춘 마을회관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됨에 따라 2021년 예산을 확보, 수산리 234-1번지를 매입하여 현재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대지면적 1,557㎡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41.5㎡ 규모로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2월에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6억 원, 행정지원금 2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을회관의 용도는 1층은 노인 회관으로, 2, 3층은 마을회관 사무실 및 단체행사를 위한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 보건진료소



연혁

- 1984. 10. 4. 수산보건진료소 개소
- 2007. 9. 17. 이전 및 신축
  (성산읍 서남로 17-1, 현 위치)

활동내용

- 초창기에는 수산1·2리와 시흥리 보건의료를 책임져 운영해왔다. 3개마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하였다.

주요기능

- 지역사회와 가장 밀접한 최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보건의료 기관임
-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의료비 절감 등에 기여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

주요사업 및 활동사항

- 방문 건강관리 사업: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 국가 암 관리 사업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 치매 예방 관리 사업: 치매 조기 검진, 인지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역주민 보건의료 향상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연계 등
- 1차 진료 및 건강증진관리 사업
-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걷기, 체조교실 등)

수상실적

- 제2회 국제자유도시배 전국 프로·아마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포메이션 노년부 2위(2009년)
- 제3회 국제자유도시배 전국 프로·아마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포메이션 노년부 1위(2010년)

역대소장

김영순 (1984~1990)	김상순 (1991~1997)	임명숙 (1998~)	한경임 (-)	이현옥 (-)	좌창중 (2006.2.~2009.2.)
석경옥 (2009.2.~2011.12.)	허정숙 (2012.1.~2016.12.)	오성자 (2017.1.~2019.4.)	현다솔 (2019.5.~2021.1.14.)	박개정 (2021.1.15.~현재)	

■ 미타요양원



원 훈
어르신에게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한관휘 원장

설립목적 구세자비(救世慈悲)를 목표로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 요양 시설이다. 노인성 질병 예방 및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연혁

- 2006. 6. 28. 사업허가 및 사업비 교부 결정
- 2006. 8. 7. 시설 건축허가
- 2007. 10. 4. 개원, 제1대 김삼정(대현스님) 원장 취임
- 2008. 5. 29.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지정
- 2009. 5. 29. 노인 전문요양원으로 승격
- 2020. 4. 6. 제8대 한관휘 원장 취임

위치 및 현황

위 치	시설규모(㎡)		종사자수(명)	생활인원(명)
	부지	연면적		
성산읍 수송로 162번길 14	6,628	1,997	46	73

■ 남제주교회





▲ 남제주교회 모습과 제3대 교역자 배종웅 목사

교회의 탄생 수산초등학교 1회 졸업생 강행수 목사가 시무하던 부산 서부교회의 강력한 개척 요청으로, 당시 부산에서 유성호를 타고 성산포에 도착하여 강덕수[29] 씨 경운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교회 부지를 물색하던 중 김성도 목사[30]가 현 위치인 수산리 681-3일대 대지 638㎡를 구입하고 남제주교회를 건축하여 개척 시무하였다.

연혁

- 1985. 4. 5. 남제주교회 개척시무 (제1대교역자 김성도 목사)
- 1992. 5.13. 제2대 교역자 이강목 목사[31] 부임
- 1996.11.14. 제3대 교역자 배종웅 목사부임
- 2015. 3.15. 이용봉사 재능기부(이동근 집사) 시작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에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이동근(18회 졸업)의 모습

재능기부 활동 약 6년 전부터 우리마을에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마다 〈수싯동산〉에 위치한 남제주교회에서 재능기부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주인공은 담당목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미용 부분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이동근이다. 재능기부 외에도 그날 이발하러 오신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도 함께 대접하고 있다.

---

29) 강덕수: 수산초등학교 제15회 졸업생이다.
30) 김성도 목사: 경북 의성군 화전에 있는 봉양교회로 전근하였으며, 7년간 개척 시무하였다.
31) 이강목 목사: 1996년도에 제주시 새순교회로 전근하였으며 6년간 시무하였다.

■ 제주 자연생태공원



시설개요 궁대오름 북쪽 편인 성산읍 금백조로 446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부에서 2017. 4월부터 운영 관리하고 있다. 산새장, 맹금계류장 등의 조류관찰소와 야외 노루 관찰장, 양서류 보호장, 파충류 보호장, 곤충류 보호장, 굼벵이 보호장 등이 있다. 부대시설로는 분화구 전망대 탐방로, 자연생태공원 탐방로, 둘레길 탐방로와 오름 탐방로 3코스가 있다.

체험 제주 자연생태공원에서는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야생동물 오감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본체험과,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체험, 곤충체험,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추진 경과 및 운영 양만길 30대 이장 당시에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2017년 31대 고대인 이장 당시에 완공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 수산체육공원





연 혁

- 2001. 10. 28. 복합체육문화교류장인 수산체육공원 준공

시설개요

- 위치: 수산리 3,105 일대이다.
- 2000년에 공사가 처음 시작되었으며, 시설 총면적은 26,400㎡이다. 축구 등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운동장 8,900㎡를 비롯해, 식당과 샤워실, 화장실 등이 있다.

추진경과 및 운영

- 수산1·2리 청년회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1999. 5월경 수산2리 마을청년회원 제의로 8명의 추진위원을 결성하여 수산리 마을회 토지 3,105 일대 8,900㎡에 잔디구장 조성 등 2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완성되었다.
- 사업기간 중에 재임했던 오인수, 고원호, 고민호, 고갑권 이장이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김석범 사업추진위원장이 사업을 시작하여, 김문국 위원장 재임 시에 준공하였다. 건립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현재는 수산1·2리 청년회에서 공동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다.
- 당시에 기반사업비 명목으로 미진건설(주) 오영진 대표 4천여만원과, 은산전기 오홍원 대표가 전기기반시설 일체 경비를 지원하였다.



▲ 은산전기 오홍원 대표



▲ 미진건설 오영진 대표

■ 수산1리 마을 임대주택



시설개요 성산읍 서성일로 1,047 일대에 부지 1,997㎡, 건물 연면적 399㎡ 2층 규모로 건축되었다. 1층에는 농수산물 직매장 약 50평과 마을식당 약 50평을, 2층에는 임대주택인 대왕주택 C동 494㎡ (20평 2세대, 19평 2세대)를 신축하여 현재 임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추진경과 및 운영 2011년에 김석범 이장 당시에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어 수산1리 마을회에서 임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 학교살리기와 마을 임대주택(대왕주택)



위치 및 시설 개요

성산읍 서남로 24-4 일대에 위치해 있다. 대왕주택 A동은 건물 연면적 529.1㎡(18평 규모, 8세대/4층), B동은 건물 연면적 494㎡ (18평 규모, 8세대/4층)로 신축되었다.

추진경과 및 운영 2014. 11월 오찬율 이장 재임 기간 중 김석범 학교살리기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마을 전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입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대왕주택 2동을 신축하였다. 1차는 2014. 2월, 2차는 같은 해 10월에 마무리되어 준공식은 11. 12일에 거행되었다. 이 사업은 도암 ENG. 2천 5백만 원을 기부하고 출향민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임대주택건립 기념비가 대왕주택 앞에 세워져 있다.



▲ 도암 ENG. 오관준 대표

■ 수산2리 마을 임대주택



시설개요 수산리 2,462-1 금백조로 일대에 부지 838㎡, 건물 연면적 629.48㎡, 건축 면적 269.79㎡, 3층 규모로 건축되었다. 1층에는 일반음식점 188.15㎡, 소매점 47.74㎡, 2층은 마을 자생단체 사무실 207.68㎡, 3층에는 다가구주택 185.91㎡ 등으로 시설되어 현재 임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추진경과 및 운영 2010년 양만길 28대 이장 당시에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 과거의 활동단체

수산리 청년회 수산리에서 처음으로 청년단체가 조직된 것은 일제 치하였던 1927년 강승보(康承保)가 주축이 되어 조직한 수산리 청년회이다. 회장에 고명훈(高明勛), 부회장에 강승보(康承保)가 선출되었으며, 공회당에 지인학숙당(知人學塾堂)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다. 수산리 2,340번지 임야 12,597평에 해송 묘목을 식재하여 조림사업에 주력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당시 정의면에는 청년회가 조직되었었는데 회장에 온평리 고은삼(高殷三), 부회장에 수산리 강승보(康承保), 신산리 강봉선(康鳳善)이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27년 지

금의 동남과 신양리 사이의 속칭 〈소금막〉[32]에서 청년회 주최로 정의면 대운동회 씨름경기장에서 항일의거(抗日義擧)가 일어 났는데, 이를 빌미로 정의면 청년회와 수산리 청년회는 일본경찰에 의해서 해체되고 말았다. 그 후 일제 말엽기에 강봉현을 앞세워 수산리 청년대가 조직되어 청년훈련에 동원되었다. 식량증산을 위하여 고용채(高龍彩)로부터 기증받은 수산리 271번지 분묘지(墳墓地) 442평, 수산리 267-3번지 전 318평과 강승보로부터 수산리 3,858번지에 있는 임야 1,187평을 빌려 개간하고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등 활동하다가 광복과 함께 청년회는 해체되었다. 청년회 소유의 수산리 27번지 분묘지 442평과 수산리 267-3번지 전 318평은 1946. 12. 1일 수산국민학교가 개교하였고, 이 땅을 부락에서 기증하였기 때문에 남제주군 교육청 소유가 되었다.

巨洞青年會 (거동청년회)

수산리 큰가름 동네인 당시 거동(巨洞)에는 예전의 강승국 집터 모퉁이에 〈조근 물고래왕〉[33]이 있었는데 그 앞에는 〈팡돌〉과 함께 〈큰 들음돌〉과 〈작은 들음돌〉 2개가 있었다. 저녁때에는 동네의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모여 시국에 대한 이야기와 옛이야기를 하였으며, 젊은이들은 〈들음돌〉을 들면서 힘겨루기를 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승보는 동네의 김정옥, 강옥룡과 더불어 시국에 대한 계몽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힘입어 1946년 정월에 강봉섭을 주축으로 9명의 거동청년회가 조직되었다.

조직 목적은 생활개선과 식량 생산을 통해 극빈자를 구제하는데 두었다. 그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강승보는 수산리 3,858번지의 1,197평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다. 청년회에서는 이 밭에 공동으로 고구마를 심어 수확하여 저장하였다가 춘궁기에 강춘효, 강현룡 등 가난한 농가에 무상으로 배급하였다. 한편으로는 생활개선 사업을 하였는데 공동목욕탕을 건립하고 동네 사람들이 목욕을 하도록 하고 위생 관념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강승보의 집 올레 한 귀퉁이에 있는 고태보의 땅을 무료로 빌려 목욕탕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강봉효로부터 누룩나무 한그루를 기증받고 목욕통을 만들고 공회당 후문 입구에 시범적으로 운용하려고 했으나 계획은 무산되고 청년회도 해체되었다.

---

32) 소금막: 고성리 352 일대이며, 염전이 가까운 곳이다. 울미나미술(산림이 울창한 곳이었는데 소금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이곳에 임시 숙소로 정하여 살게 되자 매일 장마가 졌는데 유명한 지관이 장마 원인을 이곳에 사람이 살기 때문이라 하였기 때문에 관청에서 강제 철거명령 받고 울면서 철거하였다 하여 〈울미나미술〉이라 칭하였음)에서 철거한 일꾼들이 막사를 치고 살았다고 하여 소금막이라 하였다.

33) 조근물고래왕: 규모와 크기가 작은 연자방앗간을 말한다.

■ 지금의 활동단체

【수산1리 노인회】

연혁

- 1983. 3. 수산리 학구단위 노인회 창립(남자 49, 여자 20명)
- 1989. 4. 수산1리 노인복지회관 준공
- 1997. 3. 수산1리 경로당으로 명칭 변경 및 남제주군에 등록

※ 대한노인회: 수산1리 노인회로 등록

역대회장 마을 노인회의 역대회장은 초대 고진후 회장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10명이 회장을 역임했으며, 1988년 고진후 초대 노인회장 당시 지금의 노인회관이 건립되었다.


고진후
1983~1992


강길호
1993~1997


강순택
1998~2000


고학선
2001~2002


고창권
2003~2004


김윤희
2005~2008


강범식
2009~2012


조원봉
2013~2016


고정봉
2017~2020.2.


강수용
2020. 3.~

노인복지회관의 탄생 노인복지회관 건축은 1988년에 시작하여 1989. 4. 27일에 준공되어 탄생했다. 우리마을 어르신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인복지회관의 탄생은 재일교포 향교훈장 강일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진후(高鎭厚) 노인회장 당시 노인회가 건실하게 운영되려면 노인회관이 있어야겠다는 신념으로 항상 노심초사 하던 중, 1988년에 재일교포 강일현이 잠시 귀국한 기회에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자 쾌히 거금 3천만 원을 희사하


▲ 향교훈장 강일현의 생전모습

여 노인복지회관이 2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재일교포 강일현은 이국 일본에서 모진 인고의 시련을 이겨내며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을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기증하여 향리에 바친 공덕을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칭송하고 있다. 이 공(功)을 기리기 위하여 수산1리 노인회원 일동으로 1988년에 공덕비를 수산리 1,199-1 일대 노인복지회관 앞에 세워졌으며, 제주의 현무암인 기암괴석 위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 고진후 노인회장과 이장 조명룡 재임 당시인 1989년에 재일교포 향교훈장 강일현의 의연금으로 준공된 노인복지회관. 건물 앞쪽에 在日僑胞鄕校訓長康壹鉉功德碑가 보인다.



◀ 1989. 4. 27일 마을 주민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수산1리 노인 복지회관 준공식을 가 졌다. (조명룡 이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운영과 활동사항 수산1리 노인회는 1989년에 회관이 신축되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친목 도모는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대외활동도 많아지게 된다. 특히 게이트볼 수상실적이 많다. 게이트볼 구장이 건립되어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대왕산 주택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을 어른신 약 2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수상 및 활동실적

- 노인의 날 표창장(1998)
- 제1회 성산읍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우승(2007)
- 제1회 성산읍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준우승(2007)
-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배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우승(2008)
- 제1회 서귀포시장기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3위(2009)
- 제4회 성산읍분회장기 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준우승(2009)
- 국민생활체육 서귀포시 게이트볼 연합회 우수동호인회상(2009)
- 제6회 성산읍분회장기 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우승(2010)
- 제6회 성산읍분회장기 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우승(2011)
- 제6회 지회장기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우승(2014)





▲ 단체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한 트로피, 상장 및 활동사진

【수산2리 노인회】

연혁



▲ 제 6대 곽도선 회장

- 1981. 8. 25. 학구단위 노인회로 편성
- 1998. 3. 28. 수산2리 경로당으로 명칭 변경

※ 대한노인회: 수산2리 노인회로 등록

역대회장 마을 노인회의 역대 회장은 초대 양명보 회장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6명이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곽도선 회장과 함께 모두 58명이 활동하고 있다. 회관사무실은 이사무소 1층이다.



양명보
1997.3.~2008.2.



오남종
2008.2.~2009.4.



고대원
2009.4.~2016.2.



오영두
2016.2.~2018.2.



오성익
2018.2.~2019.12.



▲ 양명보 초대회장 당시 선진지 견학

【수산1리 부녀회】


▲ 제 27대 이영미 회장

부녀회의 탄생 1960년대 이전에는 조직적으로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새마을운동 사업과 맞물려 농촌의 생활개선 사업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뜻 있는 몇몇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1963년부터 1969년까지 공식적인 대외 활동 없이 친목 단체처럼 운영해왔다.

1970년에 고희자 회장을 중심으로 수산1리 부녀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출범하여 현재까지 26명의 회장을 배출하였으며, 현재는 이영미 27대 회장을 중심으로 4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한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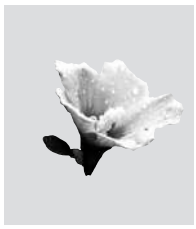
역대회장


초대 고희자
~1970


2, 8대 강정자
1971~1973
1983~1984


3대 부정자
1974~1975


4대 강춘옥
1976~1976


5대 강문자
1977~1978


6대 김정순
1979~1980


7대 강순호
1981~1982


9대 한영옥
1985~1986


10대 고인옥
1987~1988


11대 고애자
1989년~1990


12대 고매순
1991~1992


13대 현애자
1993~1994


14대 강순옥
1995~1996


15대 한영선
1997~1998


16대 한정열
1999~2000


17대 오정순
2001~2002


18대 허인자
2003~2004


19대 고희숙
2005~2006


20대 김을순
2007~2008


21대 김정열
2009~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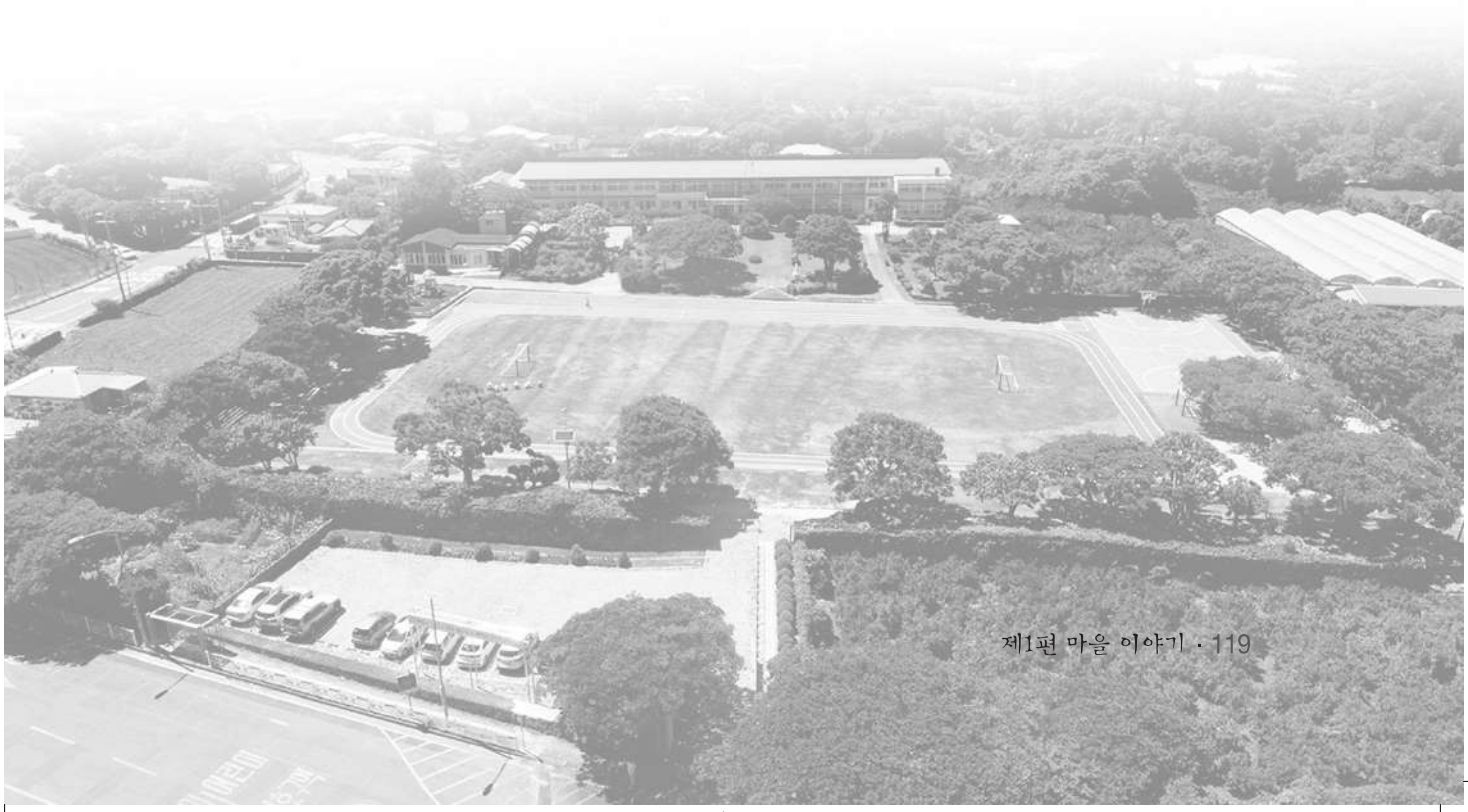

22대 최향연
2011~2012


23대 이정자
2013~2014


24대 박현미
2015~2016


25대 정경이
2017~2018


26대 오은숙
2019-2020



【4-H활동】

4-H의 정의 1947. 3월 낙후된 농촌의 생활 향상과 기술 개량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을 고무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다. 4-H는 지성(Head), 덕성(Heart), 근로(Hand), 건강(Health)의 뜻을 지닌 영어의 네 단어의 머리글자를 나타낸다.



▲ 수산2리 마을 입구에 세워졌었던 수산2 4-H회 표지석

남제주군 4-H연합회 활동 본 연합회는 1954년에 남제주군 농사교도소에서 4-H구락부가 조직되어 운영하게 되었으며, 우리마을 청년회원중 양만길 회원이 26대 남제주군연합회장을 역임하였다. 연합회 하부조직인 성산읍 4-H 임원중(1998년) 우리마을 청년회원 임원은 회장 김문식, 직전회장 고영섭, 남부회장 오관일을 비롯해 회원으로는 강관진, 김승규, 오대중, 강훈 등이 활동하였다.



▲ 남제주군 4-H연합회 휘장

수산 4-H구락부 탄생 지금은 4-H 활동을 하는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없어졌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농촌지도소를 중심으로 마을마다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었다. 당시 4-H지도자로는 성산읍장을 지냈던 고인선 선생이 앞장서서 자생적인 지도자를 키워내는데 많은 활동을 하였다. 4-H 운동은 농촌 발전에 뜻을 둔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여해 왔고 많은 사회지도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영농과학화를 중심으로 농촌 발전을 이끄는 주역을 맡아왔다.


▲ 양만길 남제주군 회장


▲ 김문식 성산읍 회장

우리마을은 1965년 이전까지는 동네별로 웃동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왕 4-H회와 서문동네를 중심으로 한 송죽, 천외동을 중심으로 한 수산, 그리고 수산2 4-H회 등 4개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1966년 남군농촌지도소 동부지소 김규홍 선생의 지도 아래 당시 고인선 자원지도자를 중심으로 기존 4-H회를 통폐합하여 수산 4-H구락부가 탄생하였다. 당시 주요사업으로는 단체과제인 가로수 식수, 도로보수 및 청소, 쥐잡기, 진드기 구제, 개량 목야지 관리 등이었다. 이웃 구락부는 선돌 4-H구락부, 흙벌레 4-H구락부 등이 있었다. 4-H회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연극제가 이루어졌는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주제로 연극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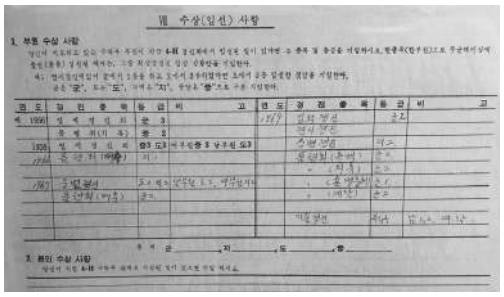

▲ 수산 4-H구락부 회원 활동모습(자원지도자 고인선과 중앙경진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영옥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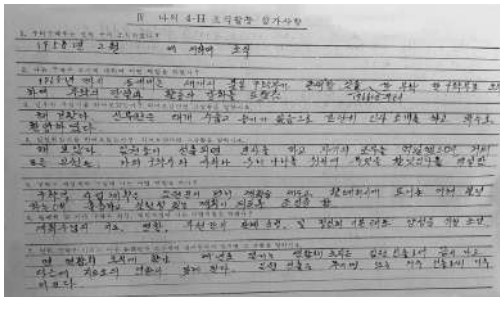
4-H 구 락 부

자 원 지 도 자 생 활 기 록 장

196 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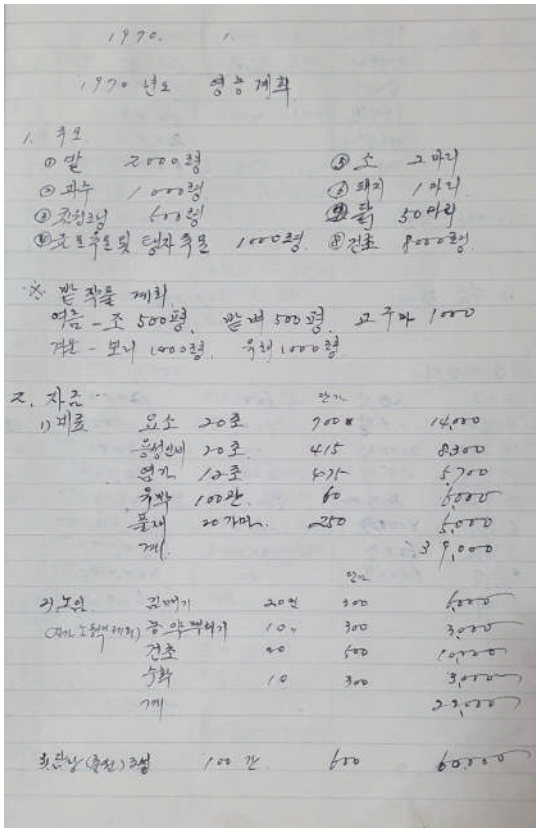


Ⅶ 수상(입선) 사항



Ⅸ 나의 4-H 도락활동 실가사항

▲ 1969년에 작성된 당시 고인선 자원지도자 생활기록장



1970.

1970년도 영농계획

1. 축산
① 밭 2000평 ⑤소 그마리
② 과수 1000평 ⑥돼지 1마리
③ 전원림 500평 ⑦닭 50마리
④ 호도수목림 및 탱자수목 1000평 ⑧건초 3000평

※ 밭작물 계획
옥수수 - 조 500평, 팥벼 500평, 고구마 1000
계분 - 보니 1000평, 유채 1000평

2. 자금
1) 비료

요소	20포	700원		14,000
황산암모	20포	415		8300
염가	12포	475		5700
추파	100관	60		6000
퇴비	20가마	250		5000
계				39,000

2) 노임	고배기	20인	300	6000
(재배노력부채)	중약뿌리기	10	300	3000
	건초	20	500	10000
	수확	10	300	3000
	계			22,000
최관남(출전) 3명		100관	600	60000

▲ 고인선 자원지도자가 1970년에 메모한 영농일기 한 부분이다. 감귤원 조성, 탱자 육묘 현황, 가축사육 현황, 밭작물 재배계획이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의 농사용 비료 가격과 노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사진 및 자료제공 한영옥, 고성일)

【재서울 수산향우회】


▲ 제 14대 김해석 회장

조직 및 탄생 고향 제주를 떠나 이곳 서울에서 격동의 역사를 몸으로 견뎌 내면서도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출발이 향우회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다. 재서울 수산향우회는 1972년 조정훈, 김윤홍, 오문남, 한태문, 고기남, 강봉룡, 박근보 등 조정훈 자택에 모여 앉아 대왕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것이 향우회 모임의 시작으로 본다. 초기에는 대왕회원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1995년 봉천동 오문남 회원 식당에서 당시 대왕회의 김윤홍 회장을 향우회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였다. 몇몇 분의 사비로 운영을 하다가 3대 고기남 회장, 김문숙 총무에 이르러 회칙을 재 제정하면서 비로소 독립적인 향우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 재서울 향우회 축구부 활동모습

사업과 활동사항 재서울 수산향우회는 회원의 친목도모, 가족등반대회, 서울 도민회 및 서울 성산읍민회 개최 행사, 성산일출 FC 주관 축구대회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고향 제주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지원 및 제2공항 관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 및 참여하고 있다.

서울 성산읍민회 및 서울 제주도민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울 성산읍민회장, 서울도민회 부회장, 서울 성산읍민회 부회장 및 집행부요원으로 활동하여 수산향우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현재 재서울 수산향우회는 100여 명의 회원들이 항상 고향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역대회장

김윤홍(초대~2대) 1995~1998	고기남(3대) 1999~2000	강승욱(4대) 2001	김문신(5대) 2002~2003	고성보(6대) 2004~2005
강석우(7대) 2006~2007	(8대) 2008~2010	김문숙(9대) 2010~2011	오용근(10~11대) 2012~2015	강덕찬(12~13대) 2016~2019

【재제주시 수산1리 향우회】


▲ 제 14대 강현숙 회장

조직 및 탄생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0년대 초반에는 우리 마을 젊은이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나 제주시를 비롯해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던 시기였다. 객지에 출타한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적인 만남을 통해 향수를 달래던 시절이었다. 당시 제주도 수협도지회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고성민 초대 회장을 중심으로 1993년도에 향리발전과 친목도모를 위한 재제주시 수산1리 향우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임원 50여 명을 중심으로 향우회가 탄생하였다. 현재까지 회장 13명을 배출하였으며, 회원은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사업과 활동사항 탄생 초창기와 지금의 사업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특히 강봉욱 4대 회장 재임 시에는 향우회 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부단히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회원 친목 도모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회원 단합대회를 비롯한 회원 경조사 참석, 향리 발전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성산읍 및 마을 체육대회 등 참가 및 지원, 효사랑 경로잔치 참석, 재능기부행사 추진, 마을제 참석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외에도 마을에서 주최하는 제2공항 관련 촛불문화제 등에 참석하여 마을의 어려움을 같이 하였으며, 비정기적으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회장


고성민(초대~2대)
1994~1997


고권형(3대)
1998~1999


강봉욱(4대)
2000~2001


고성찬(5대)
2002~2003


고순보(6대)
2004~2005


강덕률(7대)
2006~2007


고문칠(8대)
2008~2010


한봉순(9대)
2011~2012


오성보(10대)
2013~2014


고권삼(11대)
2015~2016


오인관(12대)
2017~2018


김봉열(13대)
2019~2020

【재제주시 수산2리 향우회】


▲ 제 15대 오성훈 회장

조직 및 탄생 1970년대의 고향 젊은이들은 어려운 농촌생활의 현실을 깨달아 각자의 새로운 삶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직업을 찾아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터전을 마련해야만 했던 시기였다.

우리 마을을 떠나신 분들 중 제주도 외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는 소수가 거주하고 대부분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 경찰서장을 역임했던 고대권, 고대익, 강평안, 고상권, 고대오 등을 중심으로 향우회 결성을 하기로 하였다. 이들 모두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매우 강한 분들이었으며, 초대회장에 모진 고난을 이겨내며 자수성가한 고대익을 중심으로 재제주시 수산2리 향우회가 탄생하였다. 지금까지 회장 8명을 배출하고, 현재 회원은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사업과 활동사항 우리 향우회는 회원 상호 간 우의가 돈독하여 사업추진에 적극적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기적 모임인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매년 1회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된 사업으로는 마을포제, 성산읍 체육대회, 성산읍 향우회 단합대회, 마을 단합대회, 재제주시 성산읍 청년회 및 마을 청년회 단합대회 등에 참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역대회장


고대익(초대~4대)
1990~1998


강평안(5대)
1999~2000


고대오(6~7대)
2001~2006


고상권(8대)
2007~2008


오영진(9~12대)
2009~2016


고대희(13대)
2017~2018


강석근(14대)
2019~2020

【재고성 수산향우회】

조직 및 활동사항 재고성 수산향우회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탄생되었다.


▲ 제 21대 강진혁 회장

특히 고성리는 지리적으로 태어난 마을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난한 시절에 동고동락을 같이한 이웃 마을로서 자연스럽게 출향민이 고성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1980년 후반에 강봉문, 강중협, 강승희 등이 주축이 되어 향우회 모임을 결성하였고, 현재까지 21명이 회장을 역임했다. 마을 행사 및 체육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 재고성 수산향우회 역대회장

재임기간	역대회장	재임기간	역대회장
1987 ~ 1991	강 봉 문	2004 ~ 2005	오 덕 훈
1992 ~ 1994	강 중 협	2005 ~ 2006	고 태 인
1994 ~ 1995	강 승 희	2006 ~ 2007	김 봉 구
1996 ~ 1997	강 재 문	2007 ~ 2008	강 승 효
1998 ~ 1999	강 계 현	2008 ~ 2010	고 관 범
1999 ~ 2000	강 승 진	2010 ~ 2012	오 원 국
2000 ~ 2001	강 희 량	2012 ~ 2014	김 문 현
2001 ~ 2002	김 양 규	2014 ~ 2015	고 대 식
2002 ~ 2003	오 홍 원	2015 ~ 2017	오 대 생
2003 ~ 2004	김 태 영	2017 ~ 2019	고 희 수

【재제주시 수산1리 청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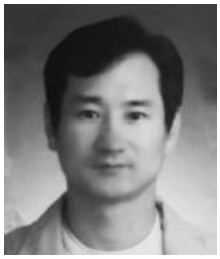
조직 및 활동사항 재제주시 수산1리 청년회는 초대회장으로 오길현을 추대하여 마을발전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현재까지 26명이 회장을 역임했다. 마을 행사 및 체육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제 27대 부문석 회장

▼ 재제주시 수산1리 역대 청년회장

초대 오길현	2대 오도근	3대 오인관	4대 고영일	5대 고문주	6대 강현숙
7대 고문섭	8대 고두백	9대 강문유	10대 김윤현	11대 한명립	12대 고건일
13대 강재길	14대 고영삼	15대 고희철	16대 고문종	17대 고철호	18대 고민수
19대 김경범	20대 김영주	21대 오윤권	22대 고희윤	23대 김문필	24대 정이흥
25대 고성탁	26대 고만봉				

【수산1리 청년회】



▲ 강원규 수산1리 제 22대 청년회장

1979년에 탄생한 젊은 청년들의 모임이다. 마을 발전을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을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성보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21명이 회장을 역임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

▼ 수산1리 역대 청년회장

초대 오성보	2대 오찬율	3대 오인수	4대 고원호	5대 고기현
6대 강성만	7대 김문권	8대 김두인	9대 정도홍	10대 강인평
11대 김석범	12대 김문국	13대 김윤관	14대 고대봉	15대 오만탁
16대 김승규	17대 오중훈	18대 고용준	19대 강동원	20대 오재일
21대 오창현				

【수산2리 청년회】



▲ 고성조 수산2리 제 12대 청년회장

혈기왕성하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모임이다. 태어나고 자란 사랑하는 고향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일 궂은일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성태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12명이 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마을안길 정리, 마을의 대소사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 수산2리 역대 청년회장

초대	고성태
2대	양만길
3대	고규완
4대	오영삼
5대	오영찬
6대	오영식
7대	고규남
8대	강규철
9대	오차욱
10대	고정민
11대	오동현

【수산축구회】



▲ 수산축구회 활동 모습

수산축구회는 축구를 좋아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1999. 6. 13일에 창립되어, 현재 4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초대 강현율 회장을 비롯하여 9명이 회장을 역임하였다. 수산주민의 체력 증진과 마을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수산리 발전을 위하여 전 회원이 협동하여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헌신적이고, 또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에 힘쓰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 및 건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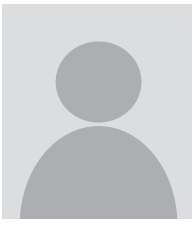
▼ 수산축구회 역대회장



강현율(초대)
1999.6.~2000.1.



강동익(2대)
2001~2002



김봉완(3대)
2003~2004



오대생(4대)
2005~2006



강완수(5, 6대)
2007~2010



김영일(7대)
2011~2012



강태영(8, 11대)
2013~2014
2019~ 현재



김문식(9대)
2015~2016



강진혁(10대)
2017~2018

【개발위원회】

마을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등 총회의 위임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개발위원장과 8~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다. 월 1회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각 반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 총괄 사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며, 기타 마을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산곶자왈 환경감시단】

성산읍의 유일한 수산 곶자왈 보존을 위하여 수산2리에서는 2006년부터 곶자왈 환경감시단을 결성하였으며, 12명 정도의 회원이 4개조로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순찰 및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수산2리는 2009년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 2012년부터는 풍력단지, 오름과 곶자왈이 함께 하는 곶자왈 생태 길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6절 정보화마을



연혁

- 2006. 10. 복지회관(수산정보센터, 건강관리실)착공 (추진위원장: 강현건)
- 2007. 1. 복지회관 준공식 및 마을정보센터 개관식, 건강관리실 개소식
- 2007～2008 정보화마을(시범운영) 운영위원장 강현건, 프로그램관리자 김윤관
- 2009～2010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김석범, 프로그램관리자 김윤관
- 2010. 4. 28. 정보화마을 직매장 착공
- 2010. 10. 5. 정보화마을 직매장 준공
- 2011～2013. 1.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김석범, 프로그램관리자 오길호
- 2013. 2.～2015. 1.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오찬율, 프로그램관리자 오길호
- 2014. 2.～2016. 1.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오찬율, 프로그램관리자 강복선
- 2016. 2.～2018. 1.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김석범, 프로그램관리자 송은경
- 2018. 2.～2020. 1.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오만탁, 프로그램관리자 강희경
- 2020. 2.～현재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김문식, 프로그램관리자 강희경

운영내용

- 특산물 판매 및 접수(수산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홍보)
-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디지털 및 컴퓨터 교육)
- 온라인 가능 민원사무 발급
- 주민등록등본(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
- 농촌체험 프로그램 안내 및 접수

시설장비

- 교육센터장, 강사용 및 교육용 PC 15대, 프린터,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 아크릴보드판, 난방기, 회의용 테이블, 책장, 안내데스크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과정, 전자상거래 운영, 인터넷, 정보검색 및 스마트폰 교육

현재까지 주요 활동사항

- 설・추석 직거래장터 참여하여 농수산물 판매 및 홍보(서대문구청)
- 전국 정보화마을이 참여하는 페스타 참가(매년 10월말~11월초)
- 우도 소라축제(2011), 전기엑스포(2016), 균형발전박람회 참여(2019)
- 인빌쇼핑을 통한 지역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 컴퓨터 기초과정 교육 및 인터넷 활용 및 스마트 폰 교육(연중 실시)
- 정보센터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영화상영
-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센터 온라인 공부방 운영
- 주민설명회 등 각종 역량강화 교육에 정보센터 활용





▲ 정보화마을 활동 모습(특산물 직거래 판매 및 정례회의)

교육실적

연도별	교육명	교육인원	교육기관
2008	· 엑셀기초 심화교육	20명	수산정보화마을(현성철)
2009	· 컴퓨터 활용-심화	7명	수산정보화마을(김윤관)
2010	· 인터넷 기초 및 활용	16명	수산정보화마을(현성철)
2011	· 컴퓨터 기초(미타요양원) · 한글2007 기초-심화 · 엑셀 심화	32명 31명 32명	수산정보화마을(오길호)
2012	· 인터넷 활용 기초 · 블로그 만들기 및 활용 · 한글2007 기초 과정 · 엑셀기초 및 활용	65명 15명 15명 15명	수산정보화마을(오길호)
2013	· 디지털 카메라 활용 기초 · 블로그활용 및 홍보하기 · 전자상거래의 이해(엑셀의활용)	15명 15명 13명	수산정보화마을(오길호)
2014	· 한글2007, 엑셀2010 배우기 · 기초인빌뉴스 등록하기 ·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활용	13명 13명 26명	수산정보화마을(강복선)
2015	· 인터넷 활용 · 인빌뉴스 기사 만들기	26명 13명	수산정보화마을(강복선)
2016	· 프로그램관리자 기초교육 · 시민정보화 교육(한글자격증반) · 라인댄스강좌 동아리반 운영(6개월) · 문화의 밤 개최(영화상영하기) · 스마트폰 사용하기	1명 18명 25명 38명 9명	정보화마을중앙협회 수산정보화마을(현성철) 수산보건소지원(강희경) 수산정보화마을(송은경) 수산정보화마을(송은경)
2017	· 스마트폰 사용하기(1:1) 6개월 · 라인댄스강좌 동아리반운영(9개월) · 인터넷 검색 ·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편집	57명 24명 50명 10명	수산정보화마을(송은경) 수산보건소지원(강희경) 수산정보화마을(송은경) 수산정보화마을(송은경)
2018	· 프로그램관리자 기초·심화교육 · 라인댄스강좌 동아리반 운영(8개월) · 인터넷및스마트폰활용 교육(9개월)	1명 25명 50명	정보화마을중앙협회 수산보건소지원(강희경) 수산정보화마을(강희경)
2019	· 라인댄스강좌 동아리반 운영(9개월) · 인터넷및스마트폰활용 교육(5개월) · 역량강화(심리치료 및 인권교육)	25명 30명 10명	수산보건소지원(강희경) 수산정보화마을(강희경) 수산정보화마을(이길주)
2020	· 찾아가는 스마트폰교육(노인대상) · 라인댄스강좌 동아리반운영(2개월)	6명 25명	수산정보화마을(강희경)

제7절 이민 단합 체육대회



마을의 발전과 주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일환의 행사로 8개 반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출향민을 비롯한 재서울, 재제주시, 재서귀포, 재고성 향우회 회원들까지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되어 현재는 우리 마을의 최대의 축제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2년마다 격년제로 열여섯 번째 대회가 치러졌으며 명실상부한 주민단합대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수산1리 이민단합 체육대회는 처음에는 청년회가 주관이 되어 행사가 열렸으나, 지금은 마을주관으로 하고 있다. 6회 대회까지는 학교운동장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2002년 7회 대회부터는 지금의 수산체육공원에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 연도별 이민단합체육대회 개최 현황

횟수	개최연도	대회장	개최장소
7회	2002.	고원호	수산리체육공원
8회	2004.	고원호	수산리체육공원
9회	2006.	강현건	수산리체육공원
10회	2008. 10. 26.	강현건	수산리체육공원
11회	2010.	김석범	수산리체육공원
12회	2012. 5. 20.	김석범	수산리체육공원
13회	2014. 10. 19.	오찬율	수산리체육공원
14회	2016. 5. 29.	김석범	수산리체육공원
15회	2018. 5. 13.	오만탁	수산리체육공원
16회	2020. 11. 1.	김문식	수산리체육공원

제10회 수산리민 단합 체육대회

■ 일 시: 2008. 10. 26.
■ 장 소: 수산체육공원
■ 대회장: 강현건



제12회 수산리민 단합 체육대회

■ 일 시: 2012. 5. 20.
■ 장 소: 수산체육공원
■ 대회장: 김석범



제13회 수산리민 단합 체육대회

■ 일 시: 2014. 10. 19.
■ 장 소: 수산체육공원
■ 대회장: 오찬율



제14회 수산리민 단합 체육대회

■ 일 시: 2016. 5. 29.
■ 장 소: 수산체육공원
■ 대회장: 김석범



제15회 수산리민 단합 체육대회

- 일 시: 2018. 5. 13.
- 장 소: 수산체육공원
- 대회장: 오만탁



제16회 수산리민 단합 체육대회

- 일 시: 2020. 11. 1.
- 장 소: 수산체육공원
- 대회장: 김문식



제 2 장
마을 역사

제1절 설촌 유래와 마을의 변천사

설촌 유래 제주도의 마을 형성은 선사시대부터 1300년(충렬왕 26)까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이 고고학적 유물이나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1] 수산리의 마을 형성은 시대적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750년 이전인 구전으로 전해오는 설촌 유래이며, 다른 하나는 750년 이후의 시기인데 고문서 등을 통해서 마을 형성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주도 최초의 탐라목장(耽羅牧場)인 수산리 남서쪽 3km지역에 1276년(충렬왕 2)에 몽골식 탐라목장을 수산평(水山坪) 벵디에 황가목장(皇家牧場)을 설치한 이후의 마을 형성과정과 그 후의 행정조직 개편 내용이다.



▲ 수산마을 이름과 거리, 큰가름(巨洞), 통개나물과 함께 설촌 역사가 시작되었던 곳 중 한 곳인 동백낭가름(남드리, 남드리 곳, 남다리)에 대한 기록이다. 大橋藪로 기록되어 있다. (新增 東國輿地勝覽, 券 38, 旌義縣)

구전에 의한 수산리 설촌

1) 비지정문화재학술보고 水山鎭城(남제주군,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4)

역사는 대략 800~1,000년에 이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마을에서는 천년 마을로 두루 부르고 있으나 확실한 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구전에 의한 설촌 유래는 큰가름(巨洞, 거동)[2]을 비롯해서 수산2리 동백낭가름,[3] 통개나물 등지에서 高씨, 文씨, 徐씨, 林씨가 모여 살다가 수재(水災), 한재(旱災), 풍재(風災), 전염병 등으로 대부분 사망하고 일부는 인근에 부락이 형성되면서 이주했다고 전해진다. 현재도 큰가름(巨洞, 거동) 외곽지대에 고송이위원(高松伊圍園), 문무학동산(文武學童山), 임창희위원(林昌希圍園), 서상희위원(徐相熙圍園), 서문창의 왓(徐文昌의 밭)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후 수산2리는 동백낭가름, 통개나물 등지에서 鄭씨, 文씨, 丁씨, 伊씨가 다시 모여 살면서 농경과 수렵으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후 洪씨, 金씨, 鄭씨, 朴씨, 高씨, 吳씨 등이 이주해 왔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생활 여건이 좋은 인근 부락이나 인척을 찾아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伊)씨는 부인 전(全)씨가 이전물에서 익사하자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수산1리에는 500여 년 전에 康씨가 입촌했으며, 그 후에 韓씨, 吳씨, 高씨, 金씨, 趙씨 등이 입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淸州 韓씨는 300여 년 전 20대 세성공(世成公)이 수산리에 이주해 와 18세 파시조 효수공(派始祖 效守公)을 모시게 되면서 그 후손들이 내팟 동네인 천외동(川外洞)을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濟州 高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년 전에 영곡공파와 26세손 고윤봉(高允奉)이 수산1리에서 이주해 와 정착하였으며,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마을의 주축이 되고 있다.

약 220년 전부터는 高씨, 吳씨, 康씨, 梁씨가 살아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吳씨는 세 곳에서 이주해 왔는데 약 200년 전인 1800년경에 군위 吳씨 중말파 11세손 오덕기(吳德起)가 신풍리에서 이주해 왔고, 1830년경에 군위 吳씨 중말파 12세손 오종요(吳宗耀)가 표선면 토산에서 이주해 왔으며, 1870년경에 군위 吳씨 13세손인 오대행(吳大行), 오승환(吳承環), 오승복(吳承復) 3형제가 수산 1리에 이주해 와 정착하였다.

康씨는 1810년 전후해서 신천 康씨 설봉공파 14세손 강봉인(康逢仁)이 오조리에서 이주해 왔으며, 梁씨는 1890년 즈음에는 제주 梁씨 사직공계 17세손인 양응준(梁應

---

2) 큰가름(巨洞): 큰가름, 큰동네라고 했으며, 康씨 一家들의 모여 살았던 동네이다. 지금의 마을회관에서 북쪽 방향 200m 지역을 말한다.

3) 동백낭가름(大橋藪): <남ᄃᆞ리> <남ᄃᆞ리 又> <남다리> 등으로 불리며, 우리 마을의 설촌역사가 시작된 곳 중 한 곳으로 기록되고 있다. 國譯增補耽羅誌(濟州文化院, 2016)에는 木橋藪(현청에서 동쪽으로 17리 거리에 있다, 左縣東十七里)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동여비고 東輿備考)』『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조선강역총도 朝鮮疆域總圖)』『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지나조선고지도 支那朝鮮古地圖)』『탐라전도 耽羅全圖(고지도첩 古地圖帖)』등 4개 지도에는 大橋藪로 표기되어 있다.

俊)이 구좌읍 평대리에서 이주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수산리에서 서쪽으로 5km 지점에 있는 황무수(黃茂藪)[4]라는 곳에는 약 190년 전 金씨, 禹씨, 康씨, 蔡씨 등이 모여 살다가 90여년 전 金씨, 禹씨 등은 구좌읍 종달리로 이주하고 康씨는 표선면 하천리에 이주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750년 전부터 근래까지는 마을의 역사에 관한 유래를 고문서와 고지도,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기록 등에 의해 찾아볼 수가 있다. 즉 마을, 수산진성, 오름, 과원(果園), 수산평, 연못 등의 지명과 마을 이름의 변화,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 水山坪과 지금의 水山鎭城인 大水山防護所城의 규모와 大水山防護所의 거리를 기록하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券 38, 旌義縣)

마을의 변천사 우리마을은 천년의 오랜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약 750년 전인 고려시대 1273년(원종 14) 元은 항몽세력인 삼별초[5]를 평정한 뒤, 제주도를 그들의 영토로 삼았다. 이후 1276년(충렬왕 2)에 몽고말 160필 등을 수산리 남서쪽 3km 지역에 자리잡은 水山坪(在水山西南高麗忠烈王時元耽羅赤等來放牛馬駱駝羊于此坪)[6] 일대에 방목하는데, 이때 탐라목장이 생긴 것이다. 둘째는 587년 전인 1434년(세종 16) 정의현에 2개의 진(鎭)을 세울 때 좌진(左鎭)을 세운 것이다. 즉, 지금의 수산진성(水山鎭城)인 大水山防護所(在縣東二十五里),[7] 大水山防護所城(石築周一千二百六十四尺高二十六尺)[8]을 축조한 것이다. 세 번째는

4) 黃茂藪(황무수): 〈황무순이 가름〉〈황무술이〉 등으로 불리우며, 궁대오름 북쪽으로 수산리 4,697 일대이다. 1910년 한일합방 당시의 戶數는 5세대로, 주민은 모두 18명(남자 9명, 여자 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삼별초: 제주 지역을 항몽의 최후 거점으로 삼았던 고려 무신정권 때의 특수 부대. 1273년(원종 14) 개경 정부의 김방경(金方慶)과 몽골의 홍다구가 여·원연합군 약 12,000명을 이끌고 제주에 들어와 육지부에서 출동한지 20여일 만에 삼별초군의 항파두리성을 함락시켰다. 이로써 3년여 동안 이어진 제주 삼별초의 항몽 활동은 종식된다. 당시 삼별초의 대장은 김통정 장군이다.

6) 新增東國輿地勝覽(券 38, 旌義縣)

7) 大水山防護所(대수산방호소): 在縣東二十五里(현동쪽 25리에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券 38, 旌義縣)

8) 大水山防護所城(石築周一千二百六十四尺高二十六尺(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천 2백 64척이고 높이가 26척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券 38, 旌義縣)

75년 전인 1946. 11. 15일에 설립인가를 받고 12. 1일에 수산공립학교가 탄생한 것이다.



▲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21년 2월, 임오)

- 1276년(충렬왕 2) 탐라목장이 생기고, 1277년(충렬왕 3)에는 동아막(東阿幕)을 수산리 수산평 지경에 설치하였다.
- 1300년(충렬왕 26) 동서도(東西道)로 나누고 현촌(縣村)을 설치할 당시 15개 현(縣) 중에서 수산리는 토산현(兎山縣)에 속했다.[9]
- 조선시대에 와서 제주도는 1416년(태종 16) 군현제 실시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의 3개 군현이 존재하는 3읍 체제로 편제되었는데, 이때 정의현을 본읍으로 하여 여기에 토산현,[10] 호아현,[11] 홍로현[12] 등의 지역을 소속시키며 각각 삼읍의 직촌으로 개편하게 된다. 당시 지금의 고성리인 <首山>은 정의현의 하부 단위를 이루게 되며, 정의현청이 소재지가 된다. 그러나 <首山>은 현청 소재지로서는 오래가지 못했다. 현감 이이(李貽)가 <首山>은 현청 소재지로서 너무 협소하고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정문(呈文)을 올리자, 전라도 관찰사가 조정으로 사의를 올려 1423년(세종 5) 지금의 성읍리로 옮겨졌다.[13]
- 1439년(세종 21) 현재의 수산진성을 水山所[14]로 기록하고 있다. 도내 군인이 주둔한 곳 중 정의현 동쪽 水山을 가리키고 있고(道內軍人屯戍之處則本州東則金寧朝天館西則都近川涯月明月大靜縣西則遮歸東則東海 旌義縣西則西歸東則水山等處), 水山所에 주둔하는 군인과 병력을 보고하고 있다(旌義縣守城三所軍人馬 步兵幷四百八十三名, 水山所軍人馬步兵幷一百七十五名).[15] 이와 함께 축성 계획을 조정에 보고하여 축성을 시작

9) 비지정문화재학술보고 水山鎭城(남제주군,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4)

10) 토산현(兎山縣): 1300년(충렬왕 26)부터 1416년(태종 16)까지 약 116년 동안 서귀포 지역에 존재했던 속현이다. 토산현의 현사(縣司) 위치는 현재 표선면 토산리 1,475-1번지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11) 호아현(狐兒縣 : 1300년(忠烈王 26)부터 1416년(太宗 16)까지 약 116년 동안 서귀포 지역에 존재했던 속현이다. 호아현의 현사(縣司) 위치는 현재 남원읍 하례리 238번지 일대를 〈대궐터〉로 추정하고 있다.

12) 홍로현(洪爐縣)은 1300년(忠烈王 26)부터 1416년(太宗 16)까지 약 116년 동안 서귀포 지역에 존재했던 속현이다. 홍로현의 현사(縣司) 위치는 현재 서귀포시 서홍동 150번지 일대를 〈대궐터〉로 추정하고 있다.

13)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서귀포시 Ⅲ. 성산읍, 표선면, 2014)

14) 水山所: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21년 2월, 임오)에 水山所라고 표기한 이유는 당시에는 城郭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이유로 진정한 鎭城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5)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21년 2월, 임오). 旌義縣 軍人 483명중 水山所 軍人이 175명(36%)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였으며 당시 제주목사는 한승순(韓承舜)이었다.

- 1443년(세종 25) 축성을 완성하여 비로소 진성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진장(鎭將)으로 조방장(助防將)을 두었다.
- 1592년(선조 25) 이경록(李慶祿)목사의 건의로 158년간 운영되던 수산진성을 성산(城山)으로 옮기게 되면서 기능을 잃고 폐성(廢城)이 되었다.
- 1599년(선조 32) 성윤문(成允文) 목사의 건의로 약 7년 만에 성산산성(城山山城)을 폐쇄하고 수산진성으로 모든 기능을 환원시켰다.
- 1609년(광해군 1) 김치(金緻) 판관이 동서방리(東西坊里)를 설치함에 따라 정의현에는 중면, 우면, 좌면을 두게 되었는데 수산리는 좌면(左面)에 속하게 되었다.
- 1675년(숙종 1)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16]이 제정되어 다섯 가구 중에서 지위와 나이를 감안하여 대표인 통수(統首) 또는 통장(統長)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때 마을의 책임자는 존위(尊位)[17]제도였다.
- 1705년(숙종 31) 수산진성(水山鎭城) 진장(鎭將)을 만호(萬戶)로 승격 승격시켰다가, 1718년(숙종 44) 약 13년 만에 다시 조방장(助防將)으로 환원하였다.
- 1785년 마을이름은 <新陽里>와 <山陽里>로 기록되어 있으며 인구수는 각각 368명, 325명이었다.[18]
- 1849년 道光貳拾玖年己酉二月日水山鎭月令舍改打量節目(도광이십구년기유이월일수산진월령사개타량절목) 고문서 기록을 보면 조방장(助防將) 鄭 모를 추천하였다.
- 1883년 후반기 水山所 조방장 강평도에 대해 근무평정을 했다.
- 1884년 후반기 水山所 조방장 홍순기에 대해 근무평정을 했다.
- 1894년 마을 이장은 경민장제로 바뀌었으며, 1896년에 이르러서는 10호(戶) 1통(統)으로 하는 십호작통제(十戶作統制)로 변경되었다. 당시는 지금의 수산2리와 <黃茂藪, 황무수>까지 한 부락으로 하여 수산리 경민장의 관할하에 두었다. 지금의 수산1리는 2리의 1호(戶)를 포함하여 22개 통(統), 2리는 4개 통(統), <黃茂藪, 황무수>는 2리의 1호(戶)를 포함하여 6호(戶)로 1개 통(統)을 이루어 27개 통(統)이었다. 통호(統戶)는 지금의 본적지 번지와 같이 고정되었다.

---

16) 五家作統法(오가작통법): 통(統)은 조선조 지방 자치 조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최말단 조직으로서 마을의 5호(戶) 1통(統)으로 연결한 인보 자치조직으로서 제주 지방에서도 조선조 전 기간에 걸쳐 존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수산리에서도 오가통제(五家統制)가 있었으며, 마을의 장은 존위 제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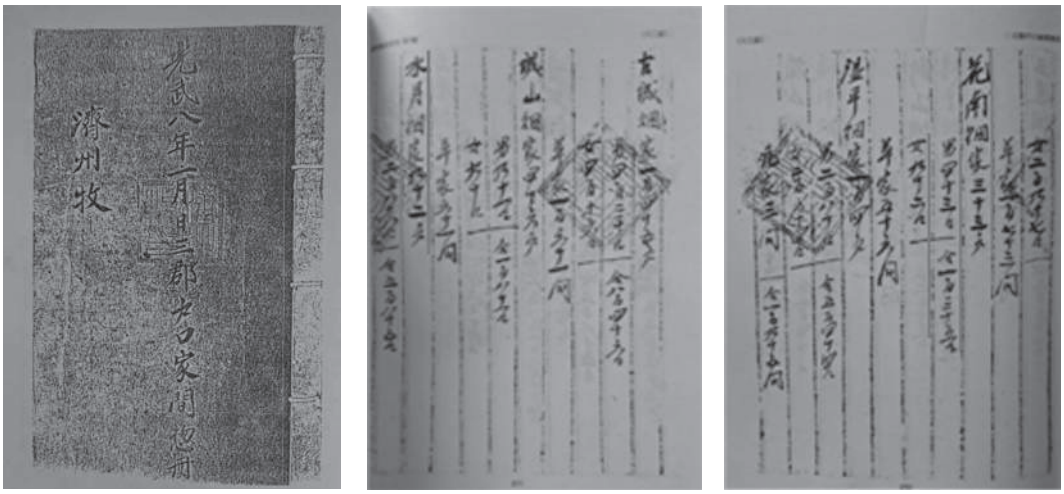
17) 尊位(존위): 리(里) 또는 동(洞)의 어른이 되는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

18) 『濟州大靜旌義邑誌, 旌義縣』에 기록되어 있으며 新陽里는 지금의 수산1리, 山陽里는 지금의 수산2리이다.

■ 1899년(광무 3) 『제주지도 濟州地圖(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와 같은 해 편찬된 『정의지도 旌義地圖(정의읍지 旌義邑誌)』에는 지금의 수산2리에 해당하는 <上水山里>와 1리에 해당하는 <下水山里>로 분화되는 행정적 편제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19세기 후반에 와서 <首山村과 訖前村> 등은 기존 마을 규모가 커지고 인구 증가 등과 맞물려 <上水山里>와 <下水山里>로 변화, 통합 및 분화되는 개편과정이 나타난다.

■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 三郡戶口家間總册』에는 정의군 좌면에 속한 15개 里 중 <水月里>와 <花男里>[19]가 존재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각각 <下水山里>[20]와 <上水山里>[21]의 행정적 명칭이 바뀐 것이다. 이듬해인 1905년에는 <水月里>와 <花南里>가 수산리로 통폐합되었다.

■ 『삼군호구가간총책 三郡戶口家間總册(旌義郡, 左面, 1904년[22])』에는 마을 규모가 기록되어 있다. <花南里>는 연가 33호이다. 남자 43명과 여자 92명을 합하여 135명이고 초가는 56칸이다(花南, 烟家 三十三戶, 男四十三口, 女九十二九, 合 一百三十五口, 草家 五十六間), <水月里>는 연가 92호이다. 남자 288명과 女子 297명을 합하여 585명이고 초가는 173칸이다(水月, 烟家 九十二戶, 男二百八十八四口, 女二百九十七九口, 合 五百八十五口, 草家 一百七十三五間)라고 기록되어 있다.



▲ 三郡戶口家間總册에 <水月里>와 <花南里> 호수 및 인구수가 기록되어 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소장)

19) 水月里, 花南里: 水月里는 수산1리, 花南里는 수산2리이다.
20) 하수산리(下水山里): 지금의 수산1리이다.
21) 상수산리(上水山里): 지금의 수산2리이다.
22) 三郡戶口家間總册(旌義郡, 左面): 1904. 1월 제주, 대정, 정의 3군(郡)의 호구와 집의 형태를 기록한 총책(摠册)이다.

- 1909년 旌義公立普通學校가 세워질 때 수산진성내에 있던 객사 건축자재들이 이곳으로 옮겨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제주군, 대정군, 정의군이 통폐합 당시에는 수산리가 전라도제주군 정의면 수산1·2구로 편제되었으며, 구장제로 변경되었다.
- 1914년 일제식민지 시대에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에는 정의면 수산리로 다시 통폐합되었다.[23] 조선총독부에서 토지 측량을 하였으나 수산인 경우 임야, 산, 황무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측량하였고, 토지의 등급이 높게 평가되어 타지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었다.
- 1916년 도사제(島司制) 실시에 따라 전라남도 제주군 정의면 수산리 1·2구로 되었으며 구장을 두었다.
- 1916년 마을주민의 찬조금 등으로 공회당을 지었으며, 오찬호(吳贊鎬) 수산1리 초대 및 6대 구장이 건축책임자를 역임하였다.
- 1918년 거동서당(巨洞書堂)이 개설되었으며, 훈장은 고승주(高承周)였다.
- 1920년 공회당에 지인학숙당(知人學塾堂)이 생겼으며 초대선생은 오희평(吳熙平)이었다.
- 1927년 수산리에서 처음으로 청년단체를 조직하였다. 강승보(康承保)가 주축이 되어, 회장에 고명훈(高明勛), 부회장에 강승보(康承保)가 선출되었다.
- 1927년 정의면 대운동회 씨름장에서 항일의거와 관련하여 마을 청년들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많은 고초를 당했다.
- 1933년 정의면이 성산면으로 바뀜에 따라 성산면 수산리가 되었다.
- 1933년경 속칭〈싯〉 냇창가에 51㎡(15坪) 정도의 석회통(石灰桶)을 지형대로 높은 곳과 낮은 곳에 나란히 두 곳을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마을 공동정호(共同井戶)의 시초이다.
- 1934. 12. 1. 수산공동목장이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며, 조합원 명부 및 우마(牛馬) 두수(頭數)를 조사한 기록이 있다.
- 1935년 제주도 학무위원(濟州道 學務委員)이었던 김정옥(金丁玉, 13대 이장)이 주축이 되어 〈幼書堂, 유서당〉이란 유치원 설립인가를 제주도사(濟州道司)로부터 받고 2년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 1939년 가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다시 수산리는 수산1구와 수산2구로 나누어 행정

23) 『성산포 城山浦(조선총독부), 1918』 지도에는 〈水山里〉와 〈花南洞〉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黃茂藪〉로 표기된 지명도 있는데, 당시 이 지도는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정의면 수산리로 다시 통폐합되었던 시기이다.

업무가 분리 처리되었다.

- 1940년 오창률 수산2구장이 수산리 2,380-2번지를 마을에 기증을 하여 향사가 신축되는 계기가 되었다.
- 1945년 민족해방이 이루어지고, 1946년 도제가 실시되자 남제주군 성산면 수산1·2리로 행정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에 수산2리는 조합장제로 구장의 관할하에 두어 운영하여 오다가 해방 후인 1948년도에 통반으로 개편되었다.
- 1946. 11. 15. 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12. 1일에 수산공립학교가 탄생했다. 당시 학교 건축자재는 旌義公立普通學校(정의공립보통학교) 구건물을 매입하여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1909년 정의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질 때 수산진성 내에 있던 객사 건축자재들이 이곳으로 옮겨 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 1948. 5. 10. 당시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산에서 내려온 무장대가 향사를 불태워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에 향사를 학교 교실로도 사용했는데 책걸상과 학교생활기록부 등도 소실되었다.
- 1948. 11. 21. 4·3사건 영향으로 수산1·2리는 고성, 오조, 신양 등 인근 마을로 소개(疏開)되었고, 2리는 완전히 소실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같은 해 12. 1일 수산1리로 통합되었다.
- 1954. 5. 수산2리는 행정당국의 지원과 수산1리 등 인근 부락의 협조로 복구되어, 마을에는 복구기념비(復舊記念碑)가 세워졌다. 오정국(吳正國) 17대 이장이 재임하면서 복구사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2년 동안 수산1리에서 행정업무를 맡았다. 1954년 마을 복구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수산2리는 둘레 580미터의 성안에 초가로 움막을 짓고 모여 살았다.[24]
- 1956년 지방자치제에서 면 조례에 따라 행정구역이 수산1·2리로 편제되어 현재까지 행정리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당시 수산2리 초대이장은 고두원이 마을 책임자를 맡았다.
- 1956. 12. 7. 수산1리 마을 입구인 수산리 248 일대에 6·25전쟁에 참가했다가 산화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충혼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 1957. 12. 16. 수산리 농업협동조합(조합장과 이사 고학선, 오석춘, 오병탁, 강자욱, 감사 강정원, 김태표)이 설립되었다.
- 1958. 5. 1. 수산2리 농업협동조합(조합장 고두원, 이사 오명표, 고영규, 고창인, 오도원, 고대진, 감사 고두홍, 고두만)이 탄생했다.

---

24) 마을 복구시 주민들이 성안에 살았으며, 성문은 보좌물(保左水) 근처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양명보 수산2리 역대 이장)

- 1958년 반(班)을 방(坊)으로 개편하면서 자연부락단위로 동문동네를 청룡방(靑龍坊), 섯동네를 백호방(白虎坊), 천외동을 주작방(朱雀坊), 큰동네를 현무방(玄武坊), 서문동네를 중앙방(中央坊) 등 5개 坊을 두었다.
- 1962년 5개 방(坊) 동네로 운영하던 것을 변경하여 1개 반(班)을 10여 호(戶) 단위로 하여 24개 반(班)으로 재편성되었다.
- 1965. 8. 도 전체의 조 밭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멸강나방이 발생하여 애벌레들이 조 잎을 갉아 먹었고 도로를 까맣게 뒤덮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 주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다행히 정부에서 농약과 분무기를 지원해 줘서 멸강나방을 박멸할 수 있었으며, 수산에서는 이때부터 농약을 사용되게 되었다.
- 1968년 蔡恩日 女史(채은일 여사)가 수산2리 향사 수리를 위한 성금을 기탁한 뜻을 기리기 위해 在日僑胞蔡恩日女史之碑(재일교포채은일여사지비)를 지금의 금백조로 수산2리 마을 입구에 세웠다.
- 1960년 후반에 누루못 지하수 개발이 성공하였고, 1968년부터 동네마다 공동수도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함으로써 먹는 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 1968년 농촌진흥원에서 탁아교육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한영옥 선생이 수산1리 탁아소를 운영하였다.
- 1969년 우리마을에 전기가 개통되었으며, 전화(電化)[25]사업을 위해 헌신하신 재일동포들의 애향심과 향리발전에 대한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1970. 2월에 수산리민 일동으로 在日同胞水山電化事業後援記念碑(재일동포수산전화사업후원기념비)를 세웠다. 같은 해 수산리 전기 점화식[26] 행사가 교실 내에서 거행되었다.
- 1970. 1. 9. 동부리 농업협동조합이 탄생하면서 수산1·2리 농업협동조합은 동부리 농업협동조합으로 합병하게 된다. 당시 수산1리 농업협동조합(조합장 강경협)은 조합원 수가 283명, 수산2리 농업협동조합(조합장 강승호)은 조합원 수가 59명이었다.
- 1972년 용눈이~모낭궤 사이 8km 구간을 이웃마을인 시흥, 오조, 신양리 등과 공동으로 농로를 개설함으로써, 마을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안길 6km 포장 사업을 주도하였다. 〈고래돌〉로 도로 다지기를 하였으며, 모든 주민들이 동원되어 반별로 자갈을 모아 길을 만들었다. 모래는 속칭 〈앞〉이라는 광치기 해변에서 주민들이 날라왔다.

---

25) 전화(電化)사업: 전기(電氣)공사 사업을 의미한다.

26) 성산일출봉농협 60년사(2019)에는 1974년도에 수산리 전기점화식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기념비 등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 1972. 12. 29. 수산리 1994-1번지 속칭〈농남ᄆᆞ르〉 지경의 지하 관정에서 끌어올리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여 성산읍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집집마다 가정용 수도를 설치하게 되면서 식수난은 해결되었다.
- 1976. 4. 9.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8개 반(班)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976년 이사무소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많은 문서와 자료들이 불에 타 없어지는 불행한 일을 겪었다.
- 1976년 도로포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주민의 숙원이던 고성~수산간 순환버스가 개통되었다. 이러한 공덕을 기리기 위한 金元斗之功德碑(김원두지공덕비)가 수산리민 이름으로 새워졌다.
- 1978년 양명보 12대 이장 재직 당시 현대식 건물로 설계를 하여 수산2리 마을회관이 1층 25평 규모로 신축되었다.
- 1980년 당시 이장이었던 김태율이 앞장서서 현대식 건물인 새마을회관을 1층 30평, 2층 20평 규모로 같은 위치에 건립하여 준공하게 되었다. 1980년에 새마을 회관 건립을 기념하기 위한 공덕비 2개가 세워졌다.
- 1980년 성산면이 성산읍으로 승격되자 수산1·2리는 성산읍에 속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 1981. 8. 수산2리 학구단위 노인회를 창립하여 등록하였으며, 초대회장은 양명보가 맡았다.
- 1983. 3. 수산1리 학구단위 노인회를 창립하여 (남자 49, 여자 20명)을 등록하였으며, 초대회장은 고진후가 맡았다.
- 1984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수산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다. 초대 보건소장은 김영순이 역임했다. 처음 보건소가 세워져 운영했던 곳은 수산리 수산서남로 24-4일대인 지금의 대왕주택 자리이다.
- 1985년 김성도 목사가 수산리 681-3 일대 대지 638㎡를 구입하여 남제주교회를 건축하여 개척시무 하였다.
- 1986년 자동식 전화가 160여 대가 가설되어 전국 각 지역은 물론 외국에까지 통화할수 있게 되었다.
- 1986년 수산~고성간 속칭 <노을어시>길 1km를 폭 12m로 확장하여 포장하였다. 당시 마을 자체자금 조달을 위해 마을 소유인 성읍경 밭을 팔아서 해결하였다.

■ 1989년 노인복지회관이 수산리 1,199-1번지에 2층 규모로 세워졌다. 1988년에 在日(재일)僑胞鄕校訓長康壹鉉功德碑(교포향교훈장강일현공덕비)가 세워졌으며, 1989. 4. 27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당시의 이장은 조명룡, 노인회장은 고진후이다.

■ 1994년 한영희 이장 당시에 초가집으로 지어진 수산 본향당인 〈울렛ᄆᆞ르 하로산당〉을 지금의 건축물로 새롭게 단장했다.

■ 1997년 고민호 이장 당시에 1997년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농로포장 및 하수도 사업비 2천만 원을 남제주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

■ 1997년 수산1리 노인복지회관을 경로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남제주군청에 등록하였다.

■ 1998년 노인복지회관을 수산2리 경로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남제주군청에 등록하였다.

■ 1998년 고민호 이장 당시에 지금의 수산2리 사무소를 건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001. 10. 28. 복합체육문화교류장인 수산체육공원이 준공되었다. 당시 수산1・2리 청년회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수산1리장 고원호, 수산2리장 고갑권, 김문국 추진위원장 재직시 준공되었으며, 건립기념비가 세워졌다.

■ 2006. 6. 구세자비를 목표로 성산읍 수송로 162번길 14 일대에 부지 6,628㎡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인 미타요양원이 개원되었으며, 제1대 김상정(대현스님) 원장이 취임하였다.

■ 2006~2007년 복지회관 건립 추진위원장인 수산1리 43대 강현건 이장 재임시 성산읍 서남로 17번지 2,346㎡를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492㎡, 2층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하였다. 복지회관과 함께 지금의 위치에 보건소를 이전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같은 해에 복지회관 건립기념비가 세워졌다.

■ 2007년 강현건 이장 당시에 서귀포시 지역에 모두 6개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어 같은해 1월 마을정보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수산 정보화 마을 운영을 시작하였다. 초대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장은 강현건 이장과 프로그램관리자는 김윤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 2007~2008년 강현건 이장 재직시에는 수산한못에서 누루못에 이르는 건천 개보수 공사와 마을안 오폐수 처리 공사를 하였다.

■ 2009년에 양만길 이장 당시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46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2009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었으며, 마을 입구인 금백조로에 〈범죄없는 마을〉 기념비를 세웠다.

■ 2010년 양만길 이장 당시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

적으로 수산리 2,462-1 금백조로에 부지 838㎡, 건물 연면적 629.48㎡, 건축면적 269.78㎡, 3층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

- 2010년 양만길 이장 당시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생태관광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2011년 김석범 이장 당시에는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산읍 서성일로 1,047 일대 부지 1,997㎡에 건물 연면적 399㎡ 2층 규모로 신축하여 현재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
- 2012년 양만길 이장 당시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재지정되었으며, 풍력단지, 오름과 곶자왈이 함께 하는 곶자왈 생태길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12. 1. 20. 오찬율 이장 재임 기간 중 정기총회 시 수산초등학교살리기 임대 주택 건립 추진안이 의결되어 부지선정, 매입 및 예산마련 방안을 협의하였다.
- 2013. 5. 수산초등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임대주택 건립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김석범 추진위원장이 중책을 맡았다. 2014. 11. 12. 준공식을 하였으며, 임대주택 건립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 2015. 11. 10. 제2공항 건설계획이 성산읍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같은 해 11. 21일 수산1리 임시총회에서 제2공항 비상대책위원회를 30명으로 구성하여 출범하였으며, 오찬율 위원장이 중책을 맡았다.
- 2016년 양만길 수산2리 이장 재임 당시 궁대오름 북쪽편인 성산읍 금백조로 446 일대에 자연생태마을 조성기반 구축을 하였으며, 2017년도 고대인 이장 재임시기부터 (사)한국조류보호협회제주지부에서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 2020년 오만탁 이장 당시 수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 시설물을 설치하여 침수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 1개소(6,960㎡), 배수로 5조(4.289km)를 설치, 준공하였다.
- 2021년 오동현 이장이 재임하면서 수산2리 현대식 마을회관을 수산리 234-1번지에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4층 규모로 연면적은 841.5㎡이다.

▼ 우리마을의 변천사 연대표

고려이전	고려, 조선	대한민국
~1,000년	1200~1960	1961~
■설촌 -큰가름(巨洞) -동백남가름 -통개나물	■1276년(충렬왕 2) 탐라목장 설치 ■1277년(충렬왕 3) 東阿幕 설치 ■1434년(세종 16) 정의현 左鎭 설치 ■1439년(세종 21) 水山所 축성시작 ■1443년(세종 25) 水山所 축성 완료 ■1592년(선조 25) 水山鎭 廢城 ■1599년(선조 32) 水山鎭 환원 ■1705년(숙종 31) 水山鎭 鎭將 萬戶 승격 ■1718년(숙종 44) 水山鎭 鎭將 助防將 환원 ■1884년(고종 21) 水山所 조방장 근무평정 (조방장 홍순기) ■1896년 十戶作統制 (1·2리, 황무수, 조합장제) ■1899년(光武 3) 좌면 上水山里, 下水山里로 편제 ■1904년(光武 8) 좌면 水月里, 花南里로 편제 ■1905 좌면 水月里, 花南里를 수산리로 통폐합 ■1910년 정의면 수산1·2구로 편제 ■1914년 정의면 수산리로 통합 ■1916년 정의면 수산리 1·2구로 편제 ■1918 거동서당 개설(훈장 고응주) ■1920년 지인학숙당 설립(선생 오희평) ■1933년 성산면 수산리로 통합 ■1934년 수산공동목장 설립 ■1935년 유서당 유치원 설립인가 ■1939년 수산 1·2구로 편제, 수산 1구 공회당 탄생 ■1940년대 오창률 수산 2구장, 부지기증 ■1946년 성산면 수산 1·2리 편제, 수산공립학교 설립인가 ■1948년 4·3사건으로 수산2리를 수산1리로 통합, 수산리 향사 소실 ■1954년 복구기념비 세움(이장 오정국) ■1956년 성산면 수산1·2리 편제 (2리 초대이장 고두원) ■1957년 수산2리 농업협동조합 출범 (조합장 고두원) ■1958년 수산리 농업협동조합 출범	■1968년 蔡恩日 女史 향사 수리 기념비 세움 ■1968년 공동수도 설치, 탁아소 운영 (선생 한영옥) ■1970년 전기점화식 ■1978년 수산2리 마을회관 증축 (이장 양명보) ■1980년 성산읍 수산 1·2리로 편제 ■1981년 수산2리 학구단위 노인회 창립 (회장 양명보) ■1983년 수산1리 학구단위 노인회 창립 (회장 고진후) ■1984년 수산보건진료소(소장 김영순) ■1989년 노인복지회관 준공 ■1994년 울렛ᄆᆞ르 하로산당 신축 (이장 한영희) ■1998년 수산2리 마을회관 신축 (이장 고민호) ■2001년 수산체육공원 준공 (이장 고원호, 고갑권,추진위원장 김문국) ■2007년 수산1리복지회관 준공, 마을정보센터 개소(이장 강현건) ■2009년 수산2리 범죄없는 마을 지정 (이장 양만길) ■2010년 수산2리 마을 임대주택건립,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이장 양만길) ■2011년 수산1리 마을 임대주택 건립 (이장 김석범) ■2012년 수산2리 자연생태 우수마을 재지정(이장 양만길) ■2013년 학교살리기 대왕주택 준공 (이장 오찬율, 추진위원장 김석범) ■2015년 제2공항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위원장 오찬율) ■2016년 수산2리 자연생태마을 조성기반 구축(이장 양만길) ■2021년 수산2리 마을회관 기본 설계 및 신축(이장 고대인, 오동현)

제2절 마을 이름의 유래

수산리 마을 이름[27]은 『水山, 수산』이다. 〈水〉는 〈믈, 물〉의 훈독자, 〈山〉은 〈뫼〉의 제주방언 〈미〉 〈메〉의 훈독자 표기이며,[28] 『水山』은 〈물미〉 〈물메〉 〈물뫼〉의 훈독자 결합표기이다. 따라서, 〈물미〉 〈물메〉 〈물뫼〉는 지금의 수산1리 옛 이름이다.

수산 2리는 화전동(花前洞) 또는 화남동(花南洞) 이라고도 불리는데 과거에는 이는 숲이 우거진 지대를 제주에서는 〈곶〉[29] 또는 〈곳〉이라고 하며, 마을 북쪽이 산전이어서 숲이 우거지고 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방아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베어냈을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곶〉앞에 설촌된 부락이라는 데서 〈고잡, 곶앞〉 또는 〈花前洞〉이라 불렸다.

수산2리의 옛 이름은 〈흘앒, 홀앞〉 또는 〈곶앒, 곶앞〉이다. 〈訖前 흘전〉은 〈흘앒, 홀앞〉의 한자 차용표기이다. 〈訖〉은 〈흘〉의 음가자 표기로 가시덤불 등으로 이루어진 언덕이나 동산 따위의 숲의 뜻을 가진 제주도 방언이다. 〈前〉은 〈앒(前) 앒전〉앞의 훈독자 표기이다. 〈花前〉은 〈곶앒, 곶앞〉의 한자 차용표기로 〈숲앞〉이라는 뜻이

---

27) 水山里誌(1994)의 수산리 명칭 유래는 고지(古誌) 또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원래 〈首山〉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를 통해 마을 이름을 살펴보면 17세기까지는 〈水山〉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이후에는 〈水〉를 〈首〉자로 바꾸어 〈首山〉이란 이름을 사용하다가 다시 〈水山〉으로 회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首山〉이란 이름이 다시 〈水山〉으로 사용하게 된 연유(緣由)가 기록되고 있는데, 마을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숙당(學塾堂)이 생겨나 양촌(良村)으로의 입지가 굳어 지면서 〈首山〉 〈首〉는 우두머리, 처음, 먼저, 머리 등을 표현하는 반면에 〈꾸벅거리다〉 〈魁首自白〉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良村으로서의 양반, 선비가 사는 마을 이름으로는 부적당하다고 해서 〈水山〉으로 개명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개명의 경위는 知人學塾, 仁義禮智 즉, 사람은 학문을 많이 배워 숙달하므로써 仁義와 禮智를 안다. 다시 말하면 어질고 인자하고 예의 바르고 슬기로우며 信義 있는 사람이 仁者가 되고 智者가 된다는 말로 仁者樂山, 智者樂水에서 〈水〉字와 〈山〉字를 따서 水山里라고 개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史料를 통해 나타난 우리마을은 1270년대부터 〈水山〉이라는 마을 이름이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首山〉이란 마을 이름은 고문서에는 1609년(광해군 원년) 旌義縣 당시 〈首山〉으로 처음 표시되고 있고, 고지도에도 1703년 탐라순력도에 〈首山〉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원래 우리마을 이름은 〈首山〉이 아니고 〈水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首〉는 〈水〉의 차용표기인 것으로 해석된다.
성산읍 역사문화지(2005)에도 마을 이름과 관련해서 17세기와 18세기에 〈水山〉을 〈首山〉으로 읽고 〈水〉를 〈首〉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首山〉은 〈水山〉의 誤記 또는 인위적으로 바꾼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28) 비지정문화재학술보고 水山鎭城(남제주군, 한국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4)

29) 곶: 〈곶자왈〉은 예로부터 〈곶・곳〉 또는 〈고지〉라 해 왔는데, 1990년대 초반부터 〈곶자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단독형〉은 〈곶〉보다 〈곳〉이 올바르고, 제주 사람들의 현실 발음에 충실하려면 〈고지〈水山〉와 〈곳〉 〈곳자왈〉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곶자왈의 정의 정립 학술세미나, 2016)

다. 黃茂藪(황무순이 가름, 황무술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궁대오름 북쪽 지역이다. <황무>는 한자 <황무, 荒蕪>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술>은 <숲> 또는 <덤불>의 뜻을 가진 제주도 방언이다. <술이>는 <숲, 藪>에 명사형 접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 지금의 수산한못을 가르키는 대지(大池)와 <울렛므르> 지명을 나타내는 뇌개(雷介, 울어개)에 대한 기록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券 38, 旌義縣)

사료에 나타나는 우리마을 이름은, 천년 마을만큼이나 마을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산1리에 해당되는 마을 이름은 고문서에는 水山, 首山, 水山里, 下水山(里), 水月里, 新陽里로 나타나며, 고지도에는 이외에도 首山村, 水山村, 수산리, 수산일리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모두 10개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 수산2리에 해당하는 이름은 고문서에는 上水山里, 花南里, 山陽里로 나타나며, 고지도에는 花南村, 化南洞, 訖前村, 花前村, 花前, 水山2里, 黃茂藪, 수산이리 등 모두 11개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

<水山>마을 이름과 관련된 기록은 탐라목장인 水山坪(수산평)(在水山西南高麗忠烈王時元耽羅赤等(재수산서남고려충렬왕시원탐라적등)來放牛馬駱驢羊于此坪(래방우마낙려양우차평)), 지금의 水山鎭城(수산진성)인 大水山防護所(대수산방호소)(在縣東二十五里(재현동이십오리)), 大水山防護所城(대수산방호소성)(石築周一千二百六十四尺高二十六尺(석축주일천이백육십사척고이십육척))[3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이름과는 별개로 수산한못인 大池(재현동십오리주이십삼리지유박빈)(在縣東十五里周二十三里池有蓮蘋)[31]와 池[32]가 기록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雷介(뇌개),[33] 大橋藪(대교수),[34] 木橋藪(목교수)[35] 등 지명이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1439년『세종실록(세종 21)』에는 <水山>으로 기록되어 있고,[36] 1481년(성종 12) 편찬한『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에도 정의현에 속한 수산리 지역의 지명으로는 水山,

30) 大水山防護所城(石築周一千二百六十四尺高二十六尺,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천 2백 64척이고 높이가 26척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券 38, 旌義縣)

31) 大池(대지): 지금의 수산한못이다. 在縣東十五里周二十三里池有蓮蘋(현 동쪽 15리에 있다. 둘레가 23리이며, 못에 순채(양하)와 마름(네가래)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券 38, 旌義縣)

32) 池(지): 지금의 수산한못이다. 정의지도 旌義地圖(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

33) 雷介(뇌개, 울어개): 울렛므르이다. 在縣東二十里周二十五里(현 동쪽 20리에 있다. 둘레가 25리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券 38, 旌義縣)

34) 大橋藪(대교수): 동백낭가름(남드리, 남다리, 남드리又)이다. 在縣東十七里(현 동쪽 17리에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券 38, 旌義縣)

35) 國譯增補耽羅誌(濟州文化院, 2016)

36)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21년 2월, 임오)

大水山, 小水山, 水山坪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1530년『신동국여지승람 新贈東國輿地乘覽』에는 〈水山〉 〈水山坪〉등으로 기록하고 있다.[37]

이외에도 三郡屠牛救弊節目(1904년)에도 〈水山〉 〈水山坪〉이라는 마을이름과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38] 이러한 기록은 수산리 마을 이름이 당초 〈水山〉이었음을 나타낸다.

1609년(광해군 원년) 동서방리(東西方里)를 설치함에 따라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을 두게 되는데 정의현에는 중면, 우면, 좌면을 두게 되었다. 당시 마을에는 경민장(警民長), 동장(洞長), 기찰장(譏察長)을 두었다. 당시 좌면에 속한 수산리 지명은 〈水山〉이 아니고 〈首山〉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표기되고 있다. 1653년(효종 3) 李元鎭이 편찬한『탐라지 정의현 耽羅志 旌義縣』편에도 수산리 지명이 〈首山〉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다른 명칭도 모두 〈首山〉이라는 글자와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首山城, 首山防護所, 小首山 首山庫, 首山坪으로 기록되고 있다.[39]

『국역증보탐라지 國譯增補耽羅志, 2016』에는 首山[40]의 위치, 小首山[41] 위치, 首山坪 위치와 거리, 果園의 이름, 大池, 首山城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42]

〈下水山里〉는 지금의 수산1리에 해당한다. 마을이름은『제주지도 濟州地圖(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정의지도 旌義地圖(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증보탐라지 增補耽羅誌 旌義縣 面村』水山鎭月令舍改打量節目(1849), 下水山里戶籍債及食物債防弊節目(1884), 光武二年戊戌七月日旌義郡左面社還定摠節目(1898), 旌義縣收籍時定式條例(1822), 戶籍 紙本錢設置節目(1900),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1839) 등의 고문서에 나타나고 있다.

〈水月里〉는『삼군호구가간총책 三郡戶口家間總册, 1904』에 세대수 및 인구수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上水山里〉는 지금의 수산2리에 해당한다. 마을이름은『제주지도 濟州地圖(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정의지도 旌義地圖(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증보탐라지 增補耽羅誌』, 光武二年戊戌七月日旌義郡左面社還定摠節目(1898), 上水山里戶籍債及食物債防弊節目(1884),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1839)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花南里〉는『삼군

---

37) 新增東國輿地勝覽(券 38, 旌義縣)

38) 耽羅誌(日本東京大學所藏本, 南萬里編纂本, 1989)에는 水山坪에 대해서 在水山西南高麗忠烈王時元耽羅赤等來放牛馬駱驢羊于此坪今廢라고 기록하여, 목장의 기능이 없어졌음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다.

39) 耽羅志(李元鎭, 1653)

40) 首山: 在縣東二十四里(首山은 정의현청에서 24리 거리에 있다). 지금의 대수산봉을 말하고 있다.

41) 小首山: 지금의 小水山峰을 말한다. 自水山所東距五里, 自縣東距二十一里, 東應城山西應獨子, 己上首山所屬(수산방호소에서 동쪽으로 거리가 5리이다. 정의현청에서 동쪽으로 거리가 21리이다. 동쪽으로 성산봉수에 응하고, 서쪽으로 독자봉수에 응한다. 이상은 수산방호소에 속한다)

42) 國譯增補耽羅志(濟州文化院, 2016)

호구가간총책 三郡戶口家間總册, 1904』에 세대수 및 인구수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수산1리에 해당하는 마을인 〈新陽里〉 마을이름은 『제주 대정 정의읍지 濟州大靜旌義邑誌, 旌義縣 坊里』에 〈新陽里〉는 정의현에서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67호, 남자는 151명, 여자는 217명이다(新陽里 自官門東距三十里民戶六十七男一百五十一 女二百十七)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濟州大靜旌義邑誌』에는 新陽里,[43] 山陽里,[44] 水山, 水山烽, 水山坪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지금의 수산2리를 나타내는 〈山陽里〉는 정의현에서 동쪽으로 25리 거리에 있으며 민호는 56호, 남자는 130명, 여자는 195명이다(山陽里自官門東距二十五里民戶五十六 男一百三十女一百九十五)라고 기록하고 있다.[45] 이외에도 水山鎭月令舍改打量節目(1849)에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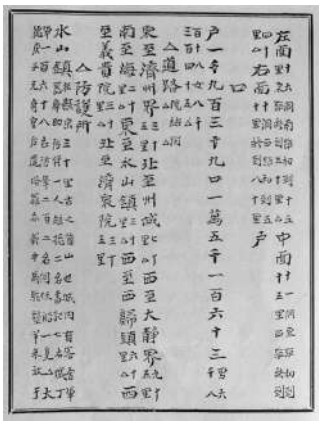
▲ 旌義邑誌(光武 3年, 1889)에 <上水山里>, <下水山里>라는 마을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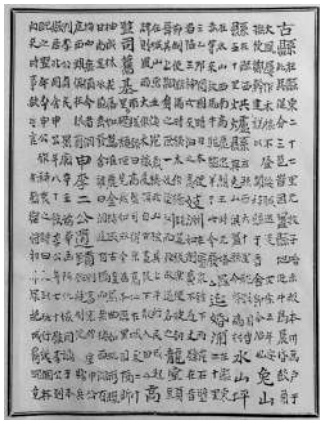
제주도의 고지도인 『한라장촉 漢拏壯矚(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1703)』에서는 首山과 首山鎭城 등과 같이 〈首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수산2리를 일컫는 〈花前〉이라는 지명이 확인된다. 『영주산대총도 瀛洲山大總圖』에는 〈首山〉 〈花前〉, 『제주삼읍도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에는 〈首山村〉 〈花前村〉으로 표기하였고, 『제주삼현도 濟州三縣圖(해동지도 海東地圖)』 『제주삼현도 1 濟州三縣圖1(해동지도 海東地圖)』에는 〈首山村〉 〈訖前村〉 『제주지도 濟州地圖(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에는 〈上水山〉과 〈下水山〉, 『제주

43) 〈新陽里〉라는 마을 이름은 18세기 후반에 수산1리의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성산읍역사문화지, 2010). 1951. 4월에 〈섭지코지〉 일대와 〈방뒷개〉 일대를 병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城山邑 新陽里〉와는 다른 마을이다. 지금의 〈城山邑 新陽里〉는 1933년에 행정리 고성리 1구, 고성리 2구로 나뉘었는데, 1951, 4월에 이르러 1구는 고성리로 2구는 新陽里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는 마을이다.

44) 〈山陽里〉는 마을에 소장된 고문서인 水山鎭月令舍改打量節目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금의 수산2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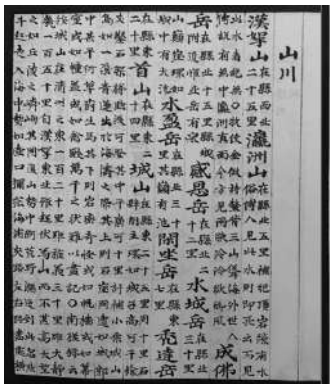
45) 濟州邑誌 旌義縣 坊里(1785). 〈新陽里〉는 지금의 수산1리, 〈山陽里〉는 지금의 수산2리이다. 城山邑誌(城山邑, 2005)에서는 제주읍지 내용 중 〈弓山里, 활미ᄆᆞ을〉을 수산리로 지칭하고 있다. 旌義縣 관문에서 北쪽으로 10里 거리에 있다. 민호는 23호 남자는 45명, 여자는 50명이다(弓山里, 自官門北距十里, 民戶二十三男四十五, 女五十)라고 하였는데, 〈弓山里〉는 지금의 성읍2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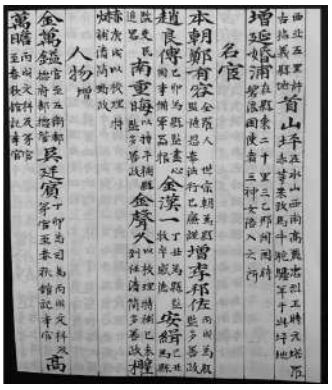


◀ <水山坪, 防護所> 등이 모두 <水山>으로 기록되어 있다.(耽羅誌, 日本東京大學所藏本, 南萬里編纂本, 1989)









▲ 國譯增補耽羅誌(濟州文化院, 2016)

① 수산진성인 방호소를 <首山>으로 표기하고 ② 지금의 대수산봉을 <首山>으로 표기하여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③ 수산방호소의 무기고를 <首山庫> ④ 목마장 이름을 <首山坪>으로 표기하고 있다.

※ 이처럼 모든 지명, 방호소, 목마장 이름 등을 <首山>이라는 글자를 앞에 붙여 기록하고 있다.

도관내도 濟州島管內圖』에는 <水山里>와 <花南洞>으로 표기되었다.

『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幷序, 1709』에도 두 개 마을이 확인되는데 지금의 수산1리에 해당하는 <首山村>과 수산2리에 해당하는 <花南村>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외에도 <首山村>과 <訖前村> 혹은 <花前村>이라는 마을이 계속 존재해 나갔으며, 이후 <首山

村>과 <花前村>은 통합되어 <水山里>라는 행정적 명칭을 사용했다.

<水山>이란 이름은『濟州道地圖 제주도지도(동여비고 東輿備考)』『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조선강역총도 朝鮮疆域總圖)』『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지나조선고지도 支那朝鮮古地圖)』『탐라전도 耽羅全圖(고지도첩 古地圖帖)』『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동여도 東輿圖), 김정호』『탐라약도 耽羅略圖, 歸求齋』 등 6개 고지도 등에 나타난다.

<首山>이라는 명칭은『한라장촉 漢拏壯矚(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1703』와『영주산대총도 瀛洲山大總圖』『제주목 濟州牧(동국여도 東國輿圖)』 등 3개 고지도에, <水山里>라는 마을이름은『제주관내도 濟州島管內圖』『제주관광안내도 濟州道觀光案內圖, 1958』『제주삼읍전도 濟州三邑全圖, 1872』『정의군지도 旌義郡地圖, 1872』『성산포 城山浦(조선총독부), 1918』『제주도행정구역지도 濟州道行政區域地圖, 1930년대』『제주지질도 濟州地質圖, 1930년대』『제주도행정요도 濟州道行政要圖, 1960년대』8개 지도에 나타난다.

<首山村>은『제주도 지도(무제)』『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幷序』『제주삼읍도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제주삼현도 濟州三縣圖(해동지도 海東地圖)』『제주삼현도 1 濟州三縣圖 1(해동지도 海東地圖)』5개 지도에 표기되었다. <水山村>은『제주도도 濟州島圖』단 1개 지도에, <下水山>은『제주지도 濟州地圖(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정의지도 旌義地圖(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와 水山鎭月令舍改打量節目(수산진월령사개타량절목, 1849), 下水山里戶籍債及食物債防弊節目(하수산리호적채급식물채방폐절목, 1884, 高宗20), 光武二年戊戌七月日旌義郡左面社還定摠節目(광무이년무술칠월일정의군좌면사환정총절목, 1898, 光武2), 旌義縣收籍時定式條例(정의현수적시정식조례, 1822, 純祖22), 戶籍紙本錢設置節目(호적지본전설치절목, 1900, 光武 4),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삼읍호적인구곡급통적미구폐절목, 1839, 憲宗5) 등에 나타난다.

1872년(고종 9) 이후에는 <首山>이란 마을 이름이 확인되지 않고, 현재 쓰고 있는 <水山>이라는 마을이름이 표기되고 있다. 하지만『삼군호구가간총책 三郡戶口家間總冊, 1904』에는 <下水山里>는 <水月里>,[46] <上水山里>는 <花南里>로 기록되어 있다.[47] 이듬해인 1905년에는 수산리로 통폐합되면서 <水山>이란 마을 이름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마을 이름이 <水山>에서 <首山>으로, <首山>에서 <水山>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首山>이란 마을 이름은 <水山>을 수산으로 읽고, <水>를 <首>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水山>의 오기(誤記)라 할 수 있다.[48] 이외에 한글 마을 이름인 <수산일리>는『성산리 城山里(대한민국 육군측지부대, 1976)』에, <수산리>라는 마을이

46) 水月里(수월리): <水月>은 <믈돌>〈므돌〉의 한자 차용표기로서<水山, 물미>의 첫음절과 <돌리미>라는 오름의 첫음절을 결합시킨 명칭이다. (비지정문화재학술보고 水山鎭城, 남제주군, 한국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4)

47) 三郡戶口家間總冊(旌義郡 左面, 1904)

48) 비지정문화재학술보고 水山鎭城(남제주군, 한국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4, 오창명)

름은『성산리 城山里(미육군 극동지도국), 1958』에 나타난다.

과거의 수산1리는 수산진성(水山鎭城)을 중심으로 1958년에는 <班>을 <坊>으로 개편하면서 자연부락 단위로 동문동네를 青龍坊(청룡방), 섯동네를 白虎坊(백호방), 천외동을 朱雀坊(주작방), 큰동네를 현무방(玄武坊), 서문동네를 中央坊(중앙방) 등 5개 방을 두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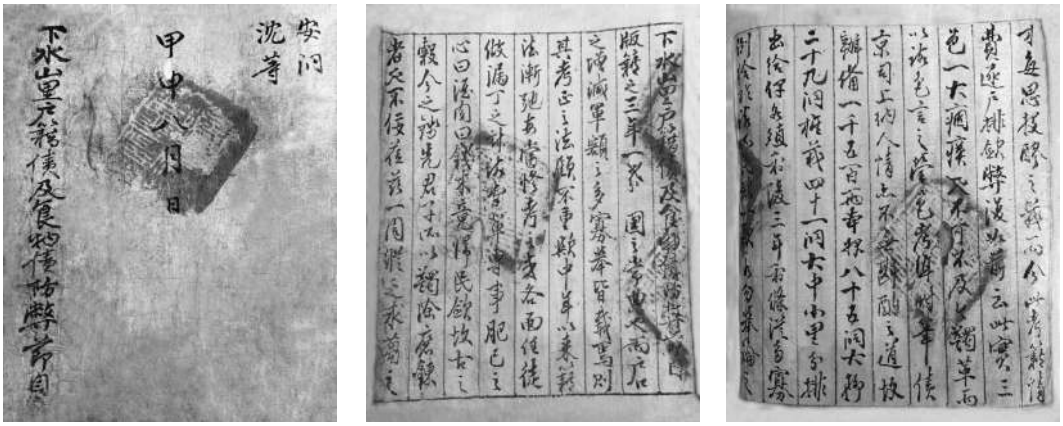
▲ 道光貳拾玖年己酉二月日 水山鎭月令 舍改打量節目(7장 중 2장과 5장). <水山鎭>과 <下水山里>와 <山陽里>로 마을 이름이 표기 되어 있다.

水山2里에 해당하는 <上水山>이라는 마을 이름은『제주지도 濟州地圖(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정의지도 旌義地圖(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증보탐라지 增補耽羅誌 旌義縣 面村』에 나타난다. <花南里>는『삼군호구가간총책 三郡戶口家間總册, 1904』에 기록되었으며, 세대수 및 인구수와 함께 나타난다.

제주고지도에 수산2리 마을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기되는데 <上水山> <花南村> <花南洞> <訖前村> <花前村> <花前> <水山2里> <黃茂藪> <수산이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上水山>이란 명칭은 1899년에 제작된『제주지도 濟州地圖(제주군읍지 濟



▲ 上水山里戶籍債及食物債防弊節目에는 마을 이름을 <上水山里>로 기록하고 있다. (1884년, 高宗 20)



▲ 下水山里戶籍債及食物債防弊節目(하수산리호적채급식물채방폐절목)에는 마을 이름이 <下水山里>라고 기록하고 있다. (1884년, 高宗 20)

州郡邑誌)』『정의지도 旌義地圖(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 등 2개 지도에 나타나며, 고문서에는 光武二年戊戌七月日旌義郡左面社還定摠節目(1898, 光武2) 上水山里戶籍債及食物債防弊節目(1884, 高宗20),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1839, 憲宗5) 등에 나타난다. <花南村>은 1709년도에 제작된 『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幷序』 <花南洞>[49]은 『제주도관내도 濟州島管內圖, 1930년대』와 『제주지질도 濟州地質圖, 1930년대』『제주도행정요도 濟州道行政要圖, 1930년대』『성산포 城山浦(조선총독부), 1918』에 나타난다.

<訖前村>은 『제주삼현도 濟州三縣圖(해동지도 海東地圖)』와 『제주삼현도 1 濟州三縣圖 1(해동지도 海東地圖)』에, <花前村>은 『제주삼읍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에, <花前>은 『한라장촉 漢拏壯矚(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1703』과 『영주산대총도 瀛洲山大總圖, 1721』에 나타나고 있다. 水山2里는 『제주관광안내도 濟州道觀光案內圖, 1958)』 黃茂藪는 『성산포 城山浦(조선총독부), 1918』에 표기되어 유일하게 마을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다. <수산이리>는 『성산리 城山里(대한민국 육군측지부대), 1976』에 나타난다.

마을 이름이 표기된 가장 오래된 지도는 『한라장촉 漢拏壯矚(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1703』으로 수산1리를 <首山>, 수산 2리를 <花前>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

49) 花南洞: 花南은 訖前과 花前처럼 곶앞〉 곶앞의 한자 차용표기로서 〈花〉는 〈곶〉이 음가자, 〈前〉은 앞〉 앞의 훈독자 표기로서 〈숲의 앞〉을 뜻하는 명칭이다.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오창명, 1998)

▼ 제주 고지도, 고문서 기록 등에 나타난 마을 이름

구분	마을이름	고문서	고지도
수산1리 (10)	水山	- 新增東國輿地勝覽(旌義縣), 1530 - 世宗實錄 84卷 임오(世宗21) - 郡縣制(水山을 旌義縣 하부조직) - 東國輿地勝覽(旌義縣) - 三郡屠牛救弊節目(1904, 光武 8)	-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 (동여비고 東輿備考) -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 (조선강역총도 朝鮮疆域總圖) -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 (지나조선고지도 支那朝鮮古地圖) - 탐라전도 耽羅全圖(고지도첩 古地圖帖) -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동여도 東輿圖) - 탐라약도 耽羅略圖(歸求齋, 1923)
	首山	- 光海君 元年(1609) - 耽羅志 旌義縣(李元鎭, 1653)	- 한라장촉 漢拏壯矚 (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 영주산대총도 瀛洲山大總圖(1721) - 제주목 濟州牧(동국여도 東國輿圖)
	水山里	- 水山里共同牧場組合規約 (昭和 9年) - 旌義郡各樣救弊節目 (1880, 高宗 16) - 旌義郡郡立普通學校基本金殖利趣旨(1908, 隆熙 2) - 水山里男丁所納禁木防給節目 (1827, 道光7)	- 제주도 관내도 濟州島管內圖 - 제주관광안내도 濟州道觀光案內圖(1958) - 제주삼읍전도 濟州三邑全圖(1872) - 정의군지도 旌義郡地圖(1872) - 성산포 城山浦 조선총독부(1918) - 제주도행정구역지도 濟州道行政區域地圖(1930년대) - 제주지질도 濟州地質圖(1930년대) - 제주도행정요도 濟州道行政要圖(1960년대)
	首山村	-	- 제주도지도(무제) - 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幷序(1709) - 제주삼읍도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 - 제주삼현도 1 濟州三縣圖 1 (해동지도 海東地圖) - 제주삼현도 濟州三縣圖 (해동지도 海東地圖)
	水山村	-	- 제주도도 濟州島圖
	下水山	- 濟州地圖(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 - 旌義地圖(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 - 增補耽羅誌 旌義縣 面村 - 水山鎭月令舍改打量節目(1849) - 下水山里戶籍債及食物債防弊節目 (1884, 高宗 20) - 光武二年戊戌七月日旌義郡左 面社還定摠節目(1898, 光武 2) - 旌義縣收籍時定式條例(1822, 純祖22) - 戶籍紙本錢設置節目(1900, 光武 4) -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 (1839, 憲宗5)	- 제주지도 濟州地圖 (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 - 정의지도 旌義地圖 (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

구분	마을이름	고문서	고지도
	수산일리	-	- 성산리 城山里 대한민국 육군측지부대(1976)
	수산리	-	- 성산리 城山里 미육군 극동지도국(1958)
	水月里	- 三郡戶口家間總册(1904)	-
	新陽里	- 濟州大靜旌義邑誌	-
수산2리 (11)	上水山(里)	- 濟州地圖(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 - 旌義地圖(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 - 增補耽羅誌 旌義縣 面村 - 光武二年戊戌七月日旌義郡左面社還定摠節目(1898, 光武 2) - 上水山里戶籍債及食物債防弊節目(1884, 高宗 20) -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	- 제주지도 濟州地圖 (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 - 정의지도 旌義地圖 (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
	花南村	-	- 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幷序(1709)
	花南洞	-	- 제주도관내도 濟州島管內圖 - 제주지질도 濟州地質圖(1930년대) - 제주도행정요도 濟州道行政要圖 (1930년대) - 성산포 城山浦 조선총독부(1918)
	訖前村	-	- 제주삼현도 1 濟州三縣圖 1 (해동지도 海東地圖) - 제주삼현도 濟州三縣圖 (해동지도 海東地圖)
	花前村	-	- 제주삼읍도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
	花前	-	- 한라장촉 漢拏壯矚 (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 영주산대총도 瀛洲山大總圖(1721)
	水山2里	-	- 제주관광안내도 濟州道觀光案內圖(1958)
	花南里	- 三郡戶口家間總册(1904)	-
	黃茂藪	-	- 성산포 城山浦 조선총독부(1918)
	수산이리	-	- 성산리 城山里 대한민국 육군측지부대(1976)
	山陽里	- 濟州大靜旌義邑誌 - 水山鎭月令舍改打量節目(1849)	-